11월3일 Market Index
코스피 5648.79 (-210.29)
코스닥 704.39 (-29.97)
금리(국고채 3년) 3.736 (-0.004)
환율(원·달러) 1341.00 (-2.80)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4일 수요일

하나금융그룹

韓, 수출 절반 반도체… 'AI 의존' 경고

반도체 수출 비중 큰 폭 상승
글로벌 AI 산업 의존도 심화
투자둔화 땐 경제 충격 우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에 따른 반도체 수출이 급증했지만, 향후 투자 증가세가 주춤할 경우 반도체 수요·가격을 거쳐 국내 성장에도 충격이 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중앙은행은 AI 투자 둔화가 현실화되면 실물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한국은행도 AI 투자 속도가 꺾이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 반도체로 쏠린 수출 호황

3일 산업통상부의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564억4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 1152억8000만달러의 약 49.0%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달 약 26.4%였던 비중이 1년 사이 크게 높아졌다. 전체 수출 증가액에서 반도체 증가액이 차지하는 몫은 약 73.1%였다.

반도체 외 품목 수출도 전년 동월보다 34% 증가했지만 수출 확대의 무게중심은 반도체에 실렸다. 이는 AI용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반도체 수출액 기준이다. 산업부는 AI 관련 빅테크의 설비투자 지속과 높은 단가·물량을 반도체 호조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해외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세가 예상을 밑돌면 반도체 수요와 가격, 한국 기업의 수출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적 변화는 설비투자와 배당·성과급 등을 통해 국내 소득으로 전달된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지난달 27일 국내총생산(GDP) 설명회에서 "기업소득이 정부소득과 가계소득으로 파급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AI 투자 조정의 실물·금융 파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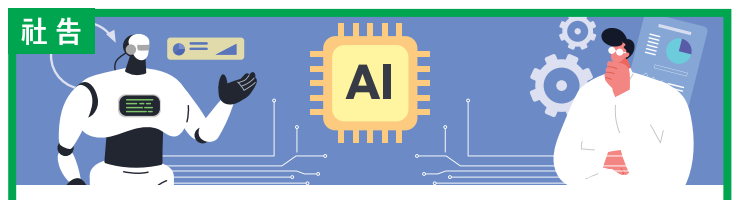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지난 2일 공개한 10월 경제·물가 전망보고서 전문에서 AI 수요 확대가 단기적으로 일본의 수출·생산과 기업이익을 끌어올린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AI 성장 기대가 크게 낮아지면 주가의 급격한 재평가와 글로벌 금융여건 긴축, 투자 둔화가 실물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일본은행은 일본의 비AI 관련 수출 부진을 짚으며 "AI 관련 수출 둔화는 전체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AI 호황의 지속 여부가 수출국 경제의 성장 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성장 민감도는 한은의 조건부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한은은 8월 경제전망에서 AI 투자 속도가 상당폭 조정되면 2027년 성장률이 기본 전망보다 0.4%포인트(p)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당시 전제를 적용한 분석으로, 반도체 수요와 국내 생산능력의 추가 확대에 따른 성장 상방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2면에 계속〉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언론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이란 주제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전환(AX)'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제 AI을 도입해 업무에 활용하는 AX는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앞선 기업만 쓰던 기술이 이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퍼지고 있습니다. 다만, AI는 업종마다 쓰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쓰는 방식과 금융업이 쓰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내 산업에 맞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AX 시대의 변화를 어렵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 드립니다. 여러분의 산업, 우리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최신 트렌드와 산업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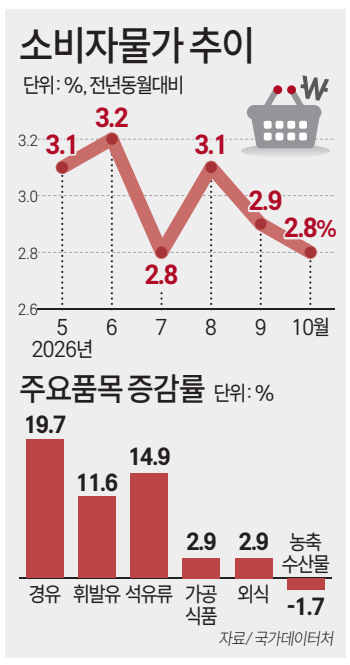
◆ 주 제 :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 일 시 : 2026년 11월 18일(수) 14:00~16:5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프로그램 :
14:20~14:50 기조강연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14:50~15:20 뤼튼테크놀로지스 김지섭 이사
15:20~15:50 LG유플러스 한영섭 AI R&D랩장
15:50~16:20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박기철 상무
16:20~16:50 SK텔레콤 현창호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장
◆ 문 의 : 포럼 사무국 (02)721-9818(forum@metroseoul.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metro



美 중간선거… 트럼프 대통령 '운명의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의회 지형을 결정하는 중간선거 투표가 미 동부시간 기준 3일 오전 5시(한국시간 3일 오후 7시)부터 순차로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임기 6년의 연방상원 의원 100석 중 35석, 임기 2년의 연방하원 의원 435석 전원, 그리고 36개 주의 주지사 및 주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앞서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반사 연못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AP·뉴시스

10월 소비자물가 2.8% ↑… 석유류 19.4% '껑충'



자료/국가데이터처

데이터처, 상승률 3%선 오가
가공식품·외식 등 상승폭 확대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3% 선을 하회했으나 석유류와 가공식품, 외식 물가 상승세는 확대됐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의 경우, 각각 11개월과 8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8%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선을 오르내리는 모습이다. 올해 5~6월 중동전쟁 여파로 3%대에 달했다가 7월에 2.8%로 내려왔다. 이후 8월 3.1%로 반등했으나 9월(2.9%)에 이어 지난달 2%대 후반을 유지했다.

품목별로 석유류가 14.9% 급등하며 전체 물가 상승률을 0.56%포인트(p) 끌어올렸다. 이는 7월(15.5%)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유가 19.7%, 휘발유가 11.6% 올랐다.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상승률은 전월 9.8%에서 14.5%로, 취사용 LPG는 11.8%에서 15.2%로 높아졌다.

가공식품도 2.9% 오르며 9월(2.1%)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작년 11월(3.3%)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다. 업체의 출고가 인상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데다 추석 할인도 끝난 영향이다. 죽 등의 즉석식품은 12.4% 올랐다. 비스킷과 빵은 각각 5.9%, 라면은 1.4% 올랐다.

외식 물가 역시 2.9% 올해 2월(2.9%)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식 물가의 전체 물가 상승률 기여도는 0.42%p였다.

반면 농축수산물 가격은 1.7% 내리며 전체 물가를 0.14%p 끌어내렸다. 〈2면에 계속〉

/김연세 기자 kys@

"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확대해야"

국정감사 산업 보호 필요성 지적

중국산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미국과 유럽 등이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에 나선 상황에서 국내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는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전기차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전기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 관세와 세제상 공제, 보조금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 없이 시장을 지킨 나라는 사실상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도 "반도체가 어려웠을 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줬듯이 전기차도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전기차를 설비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계 부처 및 청와대와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며 "전기차가 향후 2~3년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확인해 어떻게 결론을 낼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메트로 한줄뉴스

▲ 이 대통령 "하루빨리 택지 조성해 주택 공급 속도 내야"
▲ 이 대통령 지적에… 문체부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 파악"
▲ 국민의힘, 반값 등록금·월세 확대… 27조 감액 추진
▲ 보수 통합론에… 장동혁 "당원이 결정" 오세훈 "모두 다 힘 모아야"


/사진 뉴시스

▲권영세 "당대표 선거, 가장 적합하다면 나설 생각 있어"
▲경찰,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정보 유출' 수사 전환



韓-튀르키예, 확대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靑, '공군 1호기 개인정보 유출' 긴급회의

외교부, 해킹 아닌 업무 관련자 무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약 5개월간 인터넷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으며, 외교부는 외부 해킹이 아닌 업무 관련자의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2일 유료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인 '바이러스토탈'(VirusTotal)에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게시된 사실이 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한성숙 국무총리(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청와대·외교부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순방에 동행한 청와대 출입기자 등 총 16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이 외부 해킹보다는 업무 관련자의 유출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유출 주체와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이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한편 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당시 공군 1호기에 탑승했던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여권 재발급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 기자 syj@

"AI發 실물·금융충격 가능성에 대비해야"

》1면 '韓, 수출 절반 반도체…'서 계속

신현송 한은 총재도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AI 투자 지속 등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는 만큼 그 전개양상과 국내에 미칠 영향도 짚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충격을 키울 수 있는 해외 AI 기업 간 금융연계도 점검 대상이다. 한은 조사국은 지난달 27일 'AI 산업 자금조달의 주요 특징과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서 외부자금 의존도 상승과 투자·구매계약이 맞물린 순환금융 확대에 주목했다.

해외 AI 반도체·클라우드 공급기업이 고객사에 투자하고 고객사는 그 자금으로 공급기업의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고객사가 부실해지면 공급기업도 투자금 손실과 예상 매출 감소를 함께 겪을 수 있다. 이 같은 해외 AI 생태계의 충격이 반도체 공급망과 금융시장을 통해 한국으로 전달될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것.

연구진은 대형 선도기업의 양호한 재무상황과 실제 수요, 장기자금 조달 등을 고려하면 AI발 금융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외 AI 산업에서 실물·금융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망과 밀접하게 연결된 한국으로 그 여파가 크게 전달될 수 있다고 봤다. 연구진은 "AI발 실물·금융충격의 전이 강도가 과거보다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생활물가지수 2.6%↑·신선식품지수 6.2%↓

》1면 '10월 소비자물가 2.8%…'서 계속

석 달째 하락세다. 이 중 농산물이 7.5%나 내렸는데, 특히 채소류(-11.2%)에서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4.8%, 5.4% 상승했다. 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지난 1월(5.9%)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양윤영 재경부 물가정책과장은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석유최고가격을 동결한 점이 물가 완화 효과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연간 물가 전망치 달성 가능성에 대해 "연말까지 불확실성이 많아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와 물류비 상승이 물가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해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6% 상승했다. '밥상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6.2%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8% 올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6년만에 아파트 분양가 67% 급등
'서울 땅값·지방 공사비' 압력 작용

건설산업硏, 분양가격 상승요인 분석
지정학적 리스크에 원자재값 치솟아
서울 분양가 대지비 비중 갈수록 커져

〈연도별 분양가격 상승 요인별 기여도(단위:%p)〉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상반기
분양가격 상승률	11.3	7.2	11.3	13.5	4.6	5.3
대지비	3.2	2.5	4.1	5.5	1.8	2.1
공사비	7.3	8.3	4	2.1	1.1	3.5

아파트 분양가가 6년여 만에 7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의 상승폭이 공사비보다 더 확대된 가운데 서울의 경우 비싼 땅값이 분양가를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분양가격 상승요인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분양가격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놓고 보면 올해 6월까지 67%나 올랐다. 같은 기간 건설공사비지수는 38.2% 상승에 그쳤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 분양가격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 간 상승률 격차가 확대되면서 분양가격 상승이 공사비 증가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두 지수의 격차는 28.8포인트(p)로 2023년 이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분양가는 해마다 평균 8.9% 올랐다. 상승분 가운데 공사비 몫은 53.5%, 땅값(대지비) 비중은 36.5%였다. 총 90%로 분양가 상승의 주된 요인은 공사비와 땅값이었다.

기간별로는 다소 차이가 났다.

2021~2022년에는 자재비가 분양가를 끌어 올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2023~2025년에는 공사비 영향이 줄고 땅값 영향이 커졌다. 특히 2024년이 대표적으로 분양가가 13.5% 급등했다. 이 중 공사비가 올린 비중은 2.1%p에 그친 반면 땅값이 5.5%p를 올렸다. 금융비용·인허가 지연 등 통계로 잡히지 않는 요인도 5.9%p나 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미·이란 전쟁으로 다시 자재비가 분양가를 밀어 올렸다.

지역별로도 상승구조가 달랐다. 서울은 땅값이, 지방은 공사비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울은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독 높다. 최근 1년(2025년 7월~2026년 6월) 서울 분양가 중 대지비 비중은 61.1%였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60%를 넘었다. 전국 평균은 39.0%, 지방은 24.8%였다.

서울의 대지비 비중은 갈수록 늘고 있다. 2021년 48%에서 2022년 51%, 2024년 53%로 올랐다. 2025년에는 65%로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28~41% 수준이었다.

반면 서울 분양가에서 자재비 비중은 16.5%에 불과했다. 지방(31.9%)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안정을 위한 처방도 지역별로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분양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획일적 접근보다 지역별 분양가격 구성과 상승요인을 고려한 차등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서울은 신규 택지 확보가 제한적이고 대지비가 분양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만큼 공사비 관리만으로는 분양가격 상승압력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건산연은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 고밀·복합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의 장기화는 금융비용과 사업관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인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방은 공사비 상승이 사업 중단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는 게 핵심이다.

그는 "지방 등은 자재가격·인건비 등 공사원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핵심자재의 수급 안정, 자재·인력의 조달 여건 개선, 시공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 상승압력을 낮출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삼성전자·TSMC, 美 생산 경쟁 가능성 커져

삼성전자, 테일러공장 증설 추진
TSMC, 텍사스주 신규공장 검토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생산거점이 위치한 텍사스주에 신규 공장 건설을 검토하면서 양사의 현지 경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 증설을 검토하는 동시에 고대역폭메모리(HBM)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결합한 턴키 솔루션 강화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TSMC는 미국 텍사스주에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북부 셔먼시에 초기 450억달러(약 60조원)를 투입해 반도체 공장 2개를 건설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웨이저자 TSMC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월 15일 텍사스에 평가팀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TSMC는 애리조나주에도 총 265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글로벌파운드리스와는 5년간 20억달러 규모의 실리콘 인터포저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현지 첨단 패키징 공급망 확보에도 나섰다.

TSMC가 텍사스에 생산거점을 추가할 경우 같은 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와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수 있다. 특히 미국 내 AI 반도체 생산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고객사 수주와 반도체 전문인력 확보 등이 주요 경쟁 요인으로 꼽힌다.



삼성전자 美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테일러 공장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설비투자 계획은 76조 8000억원으로,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 등이 포함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29일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선단 공정의 생산능력 증설이 고객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일러 1공장은 클린룸 가동과 설비 반입을 시작했으며 추가 공장 건설도 검토 중이다. 올해 2나노 공정 수주 과제 수는 202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는 TSMC와의 경쟁에서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결합한 턴키 솔루션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우고 있다.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생산부터 후공정까지 통합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을 활용해 AI 반도체 고객사 확보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HBM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2027년 HBM 공급 물량은 목표 가격 수준에서 협상을 마쳐 모두 판매된 상태다. 올해 3분기 HBM4 매출은 전분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HBM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 수준으로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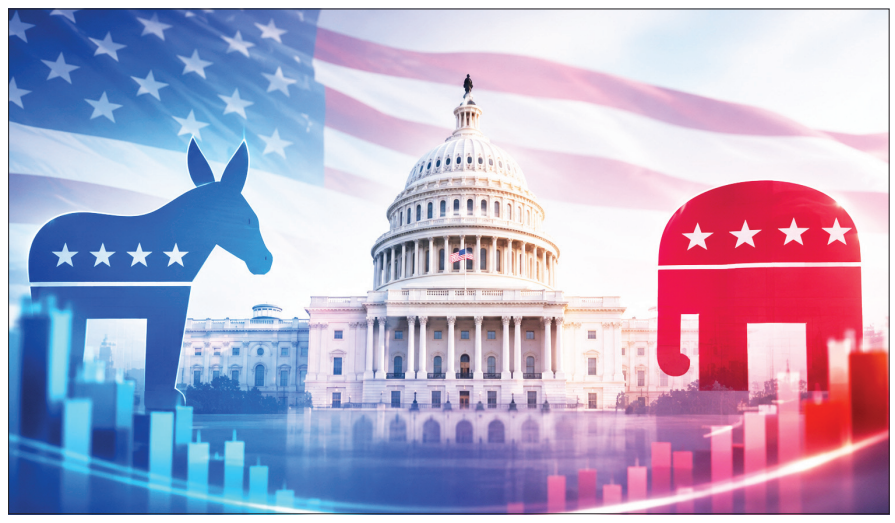
첨단 패키징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일본 요코하마에 어드밴스드 패키지 랩(APL)을 개소했으며, 오는 2028년까지 약 3500억원을 투자해 유리기판과 하이브리드 본딩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11월 1일 APL을 방문해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TSMC의 텍사스 진출이 삼성전자에 새로운 수주 기회와 경쟁 부담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는 전문가 평가도 나온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미국이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만큼 현지 파운드리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며 "TSMC에 수요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에도 생산을 맡기려는 고객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美 중간선거에 달린 수혜주… 친환경 에너지 vs 방산·원전

개미들 선거 후 증시 향방에 촉각
과거 사례에 상승장 재현 기대감
민주당, IRA 세액공제 복원 추진
공화당, 국방·에너지 안보 기조 지속
반도체·조선은 결과 무관 긍정적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미국 의회 권력 재편을 앞두고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 증시 업종별 수혜 구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에 개미(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지만, 향후 미국 경기정책 변화와 미·중 무역분쟁, 미국과 이란 전쟁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각)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선 하원 435석 전부와 상원 100석 가운데 35석을 새로 뽑는다. 미 선거분석업체 디시전데스크HQ 분석을 보면 민주당이 하원(총 435석)과 상원(총 100석)에서 다수당이 될 확률이 각각 84%와 64%에 달한다.

증권가는 결과에 따라 수혜 업종이 갈린다고 본다.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하면 전력기기·헬스케어·신재생에너지, 분점 의회면 에너지저장장치(ESS), 공화당이 양원을 지키면 방산·원전이 꼽힌다. 3일 코스피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앞두고 인공지능(AI) 수익성 우려에 3.59% 하락한 5648.79에 마감했다.

◆선거 후 증시 랠리 가능할까

증권가에 따르면 19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중간선거가 있는 해의 4분기(10~12월) 중 84%가 상승했다. 이듬해 상반기(1~6월)에는 88%의 확률로 상승했다. 달러 기준 평균 수익률은 19.8%였다. 이 9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 집권 정당이나 선거 이전의 수익률은 중요하지 않았다. 2022년에는 이 '기적'이 미국과 한국 증시의 하락세를 끝냈고, 이후 MSCI 한국 지수는 25% 급등했다.

대신증권은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하거나 양당이 의회를 나눠 갖는 경우 코스피가 올해 4분기 기존 목표치인 6700에 닿을 수 있다고 봤다. 반면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하면 재정지출 확대로 금리와 달러 가치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봤다. 4분기 코스피 하단도 기존 5200에서 4950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5~30bp(1bp=0.01%포인트)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1360~14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의 관심이 큰 반도체주는 어땠을까.

미 증시에서 1994년 이후 10월 말부터 이듬해 6월 말까지 반도체주 상승률 중간값은 약 22%였다. 다만 2002년과 2018년에는 본격적인 반등에 앞서 반도체주가 약 11% 하락하는 등 변동성을 보였다. 미국 반도체주가 오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간선거는 기존 성장모델을 둘러싼 정책 제약과 우선순위를 재배열하는 계기로 봐야 한다"며 "달라진 환경에서도 AI 기업이 설비투자(CAPEX)를 지속하고 이를 실제 이익과 현금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루웨이브' vs '레드웨이브'

투자자들의 관심은 업종별 득실로 향한다.

대신증권은 금리 하락 수혜가 예상되는 증권·인터넷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잔여 혜택 보호를 통한 2차전지의 수혜를 전망했다.

증권가에서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후퇴를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관련 업종의 정책 수혜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기기 등이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거론된다.

정원석 iM증권 연구원은 "블루웨이브가 현실화하면 태양광, ESS,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와 전력기기 업종에 대한 정책 지원 기대가 높아질 전망"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축소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복원과 송전망, ESS 투자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더라도 현행 정책 기조가 이어진다는 전제에서는 2차전지 업종에 미치는 추가적인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유지하는 '레드웨이브' 시나리오에서는 방산과 원전 등이 주요 관심 업종으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에너지 안보 중심 정책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미래에셋증권은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과 국방물자생산법 등을 활용한 핵심 산업 정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짚었다. 국방예산이 늘어나게 된다면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의 기회가 확대될 수도 있다. 원전 규제 완화 기조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반도체·조선·보험 등은 어떤 결과에도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세 업종 모두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부담이 없다"며 "반도체는 블루웨이브·분점의 미국 금리 하락·원화 강세, 조선은 마스가(MASGA)·함정 MRO의 초당적 지지, 바이오는 바이오시큐어법(BIOSECURE법)이 근거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서학개미들도 수혜 업종 찾기가 한창이다. 정정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0월 미국 빅테크 주가 조정이 컸으나 장기 상승 추세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최근 주가 조정으로 낮아진 밸류에이션 멀티플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에서 주목해야 할 섹터로 정보기술과 경기 소비재를 제시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원·하청 교섭 확대됐지만… 의제·책임범위 놓고 노사 혼선

노란봉투법 7개월

❷ 현장의 변화와 과제

지난 3월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으로 하청노조와 원청의 교섭 길이 넓어졌지만, 교섭 의제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현장의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한 사업장이 있는 한편, 기존 안전관리 업무가 원청의 교섭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현대제철, 자회사 노조와 안전교섭 합의
이행 시점·주체는 후속 협의서 논의
교섭 의제 확대에도 노사 입장차 여전
노동계, 교섭 지연·정부 지침에 반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으로 원청과의 교섭 가능성이 넓어졌지만, 현장에서는 교섭 의제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따능 AI로 생성한 노란봉투법 관련 이미지. /따능 AI

3일 〈메트로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제철과 자회사 4개(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노조는 산업안전 분야의 원·하청 교섭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다만 합의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시점과 주체는 후속 논의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현재 자회사와 자회사 노조 간 기존 단체교섭에 대한 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하청 교섭 합의 사항에 대한 논의는 자회사 단체교섭 후속 협의 종료 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원청과 자회사 노조가 합의에 이른 사례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교섭 범위 확대가 구체적인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교섭 의제를 제시하는 단계부터 원청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두고 노사가 이견을 보이는 경우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용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공인노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섭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은 노사가 다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이 지원하거나 자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섭 의제 등이 변화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결과물로 나온 것은 아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노무사에 따르면 노조는 교섭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은 사안도 의제로 제시하려는 반면, 사용자 측은 해당 사안까지 교섭해야 하는지 판단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노동조합들은 한 번씩 실질적인 교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가 교섭에 다 응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변재인 미래생각일자리센터장(공인노무사)도 교섭 상대방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변 노무사는 "현장에서는 교섭할 수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부터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이견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례가 축적돼야 교섭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도 정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혼선은 원청이 기존에 수행해온 하청 노동자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한 상담에서도 나타났다.

이용석 노무사는 "원청의 안전관리자가 보통 하청까지 관리를 해줬다. 같은 건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일도 같이 하기 때문"이라며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자들이 기존 관리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교섭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하청 노동자의 안전관리에 관여해온 사실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노동계는 작업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원청이 관련 교섭에도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 들어가 일하는 구조에서는 하청이 안전체계나 장비를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현장을 전체 관할하고 있는 원청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안전 문제를 원청과의 교섭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청 안전관리도 교섭 쟁점 부상
일부 사용자, 교섭 책임 확대 우려
노동계,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조
근로조건 개선 성과는 더 지켜봐야

같은 안전관리 업무를 두고 사용자 측에서는 교섭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려는 반면, 노동계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셈이다.

교섭 범위를 안내하는 정부 해석지침의 역할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월13일 청와대 앞에서 원·하청 교섭에 적용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교섭을 지연시키고, 정부 해석지침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좁히고 있다며 시행령·해석지침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정부 지침이 교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노사가 각자에게 유리한 대목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 1면 '국산 전기차… '서 계속

中 전기차 국내 점유율 44%
국산차 비중 49%로 하락

앞서 윤후덕 민주당 의원도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외 시장 확대를 언급하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역시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자동차는 제외됐다"며 국산 전기차의 주류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침투 속도와 맞물려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된 중국산 승용 전기차는 11만2417대로 전년 동기(5만 1535대) 대비 2.2배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은 43.5%로 8.4%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48.7%로 6.2%포인트 하락하며 과반이 무너졌다. 가격 경쟁력과 배터리·소프트웨어 기술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국내 시장 점령이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제조업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신설 방안이 담겼지만, 지원 대상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핵심소재, 태양광·풍력, 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로 전기차는 제외됐다. 반면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미래형 자동차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4건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는 11월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세법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는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완성차는 물론 소재·부품·배터리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성운 기자 ysw@

피크타임 때 잉여 전력 재활용… 전력망 응급실 '양수발전'

⑪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인공지능(AI)의 전면적인 확산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으로 전력수요가 가파르게 치솟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의 역할이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넘어 전력계통 안정성을 전방위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력 생산량을 단순히 늘리는 것만큼이나, 급변하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실시간으로 유지하는 일이 국가 에너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무탄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가속화되면서 전력 공급의 변동성을 유연하게 흡수하는 양수발전과 수력발전의 전략적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다.

국내 최대 발전공기업인 한수원은 원전뿐 아니라 수력·양수·태양광 등 다양한 발전원을 아울러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력망의 '응급실'로 불리는 양수발전은 전력수요가 폭증하는 시대에 한수원의 역할 변화를 상징하는 핵심 설비다. 전력이 남을 때는 이를 흡수하고 부족할 때는 수분 만에 신속하게 공급하는 전력망의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전력 안정 공급, 수급 변동 방어하는 '계통 유연성'에 국가 경쟁력 달려
양수발전, 양방향 기능으로 균형
전국 7곳 16기 양수발전기 운영
전체 설비용량 약 4700㎿ 규모
전력 즉각 투입, 잉여 전력 흡수 가능
1980년부터 축적한 노하우 보유
AI로 예측진단·설비관리 고도화



자료/한국수력원자력

◆ 전력수요 폭증 시대, 발전량 확대만큼 시급한 '계통 유연성'

대한민국 에너지 시장은 AI 데이터센터(AIDC)와 첨단 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한 대규모 전력수요 급증, 그리고 탄소중립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거대한 파고와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실무적으로 전력계통 운영에 거대한 도전 과제를 던진다. AI 인프라와 첨단 반도체 라인은 단 1초의 전력 중단이나 주파수 흔들림조차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인 안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발전소를 더 많이 짓는 것뿐 아니라 생산된 전력을 필요한 시점에 오차 없이 공급하고 급격한 수급 변동을 방어할 수 있는 '계통 유연성'이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된다.

원전이 흔들림 없는 대규모 기저부하를 책임진다면, 시시각각 요동치는 수급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것은 단연 양수발전이다. 전력이 과잉일 때는 흡수하고 부족할 때는 수분 내에 출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양방향 기능은 전력망 붕괴를 막는 최후의 보루다.

◆ 재생에너지의 명암과 양수발전의 작동 메커니즘

양수발전은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려(양수) 저장하고, 반대로 전력이 부족할 때는 상부저수지의 낙차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발전)하는 방식이다. 화학적 배터리와 달리, 물의 위치에너지를 활용해 대규모로 전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일종의 거대한 에너지저장장치(ESS)인 셈이다.

현재 국내에는 청평·삼랑진·양양·예천 등 전국 7곳에 16기의 양수발전기가 운영되고 있다. 전체 설비용량은 약 4700㎿로 원전 4~5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단순한 발전량 확보를 넘어, 전력계통의 위기 상황이나 변동에 맞춰 즉각적으로 출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불가한 가치를 지닌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극심하게 출렁인다. 맑은 날 낮에는 태양광 발전이 폭증해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해가 지면 급감하는 식이다. 다른 발전원들이 가동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반면, 양수발전은 수분 내로 전력을 즉각 투입하거나 잉여 전력을 흡수할 수 있다. 폭염 속 냉방 수요 폭발이나 기상 급변 상황에서 양수발전이 전력망의 방어선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는 이유다.

◆ 잉여전력의 공포와 2025년 스페인·포르투갈 정전 사태의 교훈

양수발전의 진면모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수록 더욱 선명해진다. 태양광 발전이 전력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시간대에는 발전량이 많아도 이를 소비하거나 받아줄 그릇이 부족하면 계통 운영에 거대한 부담이 가중된다.

국내에서도 태양광 보급이 늘어나면서 공장과 기업 가동이 줄어드는 봄철 주말이나 명절 연휴마다 잉여전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5년 5월 1일 정오 무렵에는 태양광 발전이 전체 전력수요의 50%를 홀로 담당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계통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잉여전력은 결국 발전량 강제 감축(출력제어)으로 이어진다. 이때 양수발전이 남아도는 전력을 하부에서 상부로 끌어올려 저장하는 '스펀지' 역할을 수행하며, 버려질 뻔한 재생에너지를 저녁·밤 시간대 피크타임의 전력수요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서 2025년 4월 유럽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역을 강타했던 대규모 정전 사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기에서 계통 유연성 확보가 얼마나 절체절명의 과제인지 경고한 대표적 사건이었다. 양수발전은 단순 보조 전원을 넘어,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필수적인 안전판이다.

◆ 30년 운전 노하우와 설비 고도화… 신뢰성 확보가 관건

이처럼 양수발전의 현장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설비 운영과 유지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진다. 기저부하를 우직하게 담당하는 원전과 달리, 양수발전은 계통 상황에 따라 하루에도 수차례 가동과 정지를 반복해야 한다. 잦은 운전 전환은 설비 피로도를 높이고 부품 수명이나 정비 주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내 최초인 청평양수발전소(1980년 준공)를 비롯해 예천양수발전소(2012년 준공)에 이르기까지, 한수원은 수십 년간 축적해 온 방대한 운전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한수원은 이러한 경험 자산에 인공지능(AI) 기반 예측진단 기술과 디지털 기반 설비관리 체계를 전면 접목하여 관리 수준을 고도화하고 있다.

전력계통 이상 상황에 즉각 반응해야 하는 특성상, 사전에 고장 징후를 포착하고 정비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력은 양수발전 신뢰성의 핵심이다. 결국 AI·첨단 산업 시대의 안정적인 전력망은 어느 한 가지 발전원만으로 지탱될 수 없다. 대규모 기저부하를 책임지는 '원전'과, 시시각각 변하는 계통 변동성을 방어하고 잉여 전력을 수용하는 '양수·수력발전'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만 비로소 탄탄한 국가 에너지 생태계가 완성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첨단 산업 확대와 무탄소 전원 전환 속에서 양수발전의 안정적 운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올 겨울 전력공급에 충실함은 물론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위해 양수발전소가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사옥 전경.


예천양수발전소 상부지 항공사진.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3월 자체 개발한 상태감시 및 자동예측진단 시스템 에이치-에이아이엠디(H-AIMD, Hydro-Artificial Intelligence Monitoring&Diagnosis)를 예천양수발전소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다. /한수원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

행복이란 건
누구에게나
당아야 하잖아요?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로

온 국민의 내일을 밝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누구나
내일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국민 행복시대

국민 누구나 행복에 가까이

KB국민은행이 함께 합니다

Korea Better
KB국민은행



국민의 오늘이 행복하게

KB마음가게 **요식업 소상공인 경영지원 및 맞춤형 홍보**
KB희망금융센터 **신용상담·채무조정 및 심리상담 지원**



청년들의 도전이 행복하게

KB굿잡 취업 박람회 **청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 지원**
KB인재양성 **전국 청년 AI 인재양성 프로그램**



아이들의 내일이 행복하게

KB작은도서관 **문화소외지역에 도서관 건립**
KB온종일 돌봄 **전국 아동 방과후·야간 돌봄 제공**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KB금융그룹의 포용금융 프로젝트입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서비스) 계약 체결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892호(2026.02.27.) 유효기간 2026.02.27.~2027.02.26.까지

KB 국민은행

신천지 당원, 민주당 가입 없었다… 김 vs 청 갈등 커지나

〈김민석〉 〈정청래〉

민주당 신천지 조사 보고 무산
정청래 "결자해지" 책임론 제기
조작기소특검법, 당론으로 추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자신이 8·17 전당대회에서 주장한 당 조사 결과 '반명(反이재명)·신천지·분열주의의 제3자 비밀연합'은 없었다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조사한 박선원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 단장이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으나, 김 대표의 앞선 사과로 박선원 단장의 결과보고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에 큰 상처가 났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두고 민주당 내 친김민석계와 친정청래계 간의 내부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박 단장이 신천지 관련 조사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지만, 김 대표가 먼저 말씀하셨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신천지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 누구도 그런 부분을 인지적으로 주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의 표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의원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울컥였다고 한다. 김 대표의 사과 이후 의원들은 '잘 결정했다'며 박수를 치고 조사 결과를 보고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신천지 의혹 관련해 당국에 수사 의뢰도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수사 의뢰를 하거나 더 갈등을 일으키자는 쪽으로 말씀하시거나 의견을 낸 의원이 전혀 없고 내부에서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대표가 조사 결과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의 사과에 대해 '다른 의원들의 의견 표명이 없었냐'는 질문에 "대표님 사과로 보고 건은 종료됐고, 그 외는 공개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의 경쟁 상대였던 정청래 전 대표는 비공개 의총 중 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기자들에게 김 대표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김 대표의 책임론을 띄웠다.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로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는 선거운동 초반 '반명(反이재명)·신천지·분열주의'의 제3자 비밀연합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친명계 지지자들은 비밀연합의 배후에 친청(친정청래)계가 있다며 당내 계파 갈등을 키운 핵심 소재로 당 대표 선거에 활용됐다.

신임 지도부 구성 이후, 신천지 관련 의혹이 터져나올 때마다 친청계인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박선원 단장이 조사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권력기관의 권한 오·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특검법을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작기소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기존 발의된 안의 자구 수정을 거칠 예정이다.

의원총회의 또다른 쟁점이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는 원내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시간이 걸릴 예정이어서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법안 상정을 요청할 예정이며 국민의힘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한과 북한 지뢰 도발 관련 결의안도 본회의 통과를 노린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李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중요"

국무회의서 집값 안정 의지 재확인
객관적인 시장 자료 투명하게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서 직접 접할 수 있게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시장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물이 증가하는 반면, 거래량과 실거래가는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지역의 지금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며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물론 아닌 지역도 있다"며 지역별로 시장 상황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얻는 일부 세력이 시장 정보를 편향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상승을 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그 자료 중의 일부만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측면들이 보인다"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진 않다"면서 "그러나 그게 정부 당국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서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됐고, 또 반드시 깨야 한다"면서 "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대적 주택 공급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집값이 하락·안정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으며, 공포매수 심리를 누르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 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면서 "이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했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상당 정도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것인데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절벽도 완화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국힘, 27조 삭감·11.6조 증액 예산안 제시

'국민 삶 해결 예산안' 공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불필요한 예산 27조원을 삭감하고,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소방 안전' 등 민생 분야에 약 11조6000억원을 늘리는 '국민 삶 해결 예산안'을 공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를 열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댄 장밋빛 성적표를 들고 흔들며 821조원짜리 초팽창 예산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이다. 올해 국가채무 1412조8000억원에 비해 107조원이나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채 순증가 분이 거의 없다고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100대 문제 사업을 찾아 총 27조원 규모의 지출 감액안을 제시했다"며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전액 국채 상환에 쓰도록 해, 국채 이자 비용 3조원도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액안은 ▲청년의 삶 3조4287억원 ▲국민 안전 2조9100억원 ▲국민 생업 2조8306억원 ▲국민 일자리 1조2250억원 ▲생활 불안 1조1981억원 등 총 11조5924억원이다.

청년 지원에서는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한다. '청년 삶 해결'에 배정한 금액의 절반 이상을 투입해 전국 사립대·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평균인 400만원대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청년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는 6950억원을 지원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소방 안전 지원 확대에 2조4100억원을 투입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일상 회복을 돕는 '국가책임 강화' 사업에도 5000억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 지원은 실질 소득을 늘리고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총 1조8416억원을 투입하며, 소상공인 신용취약자금은 1조2000억원으로,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지원 규모는 4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7440억원을 증액한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에 2469억원을 추가로 배정하고, 농업재해보험 국고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60%로 높인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9800억원을 들여 '지역주도형 기업 설립'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자본금의 49%를 투자하고, 민간이 나머지 51%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본금 500억원 규모의 지방 기업 40개를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24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소득 안정을 돕고, 고용 형태에 따라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도 강화한다. 이 가운데 새로운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데 8881억원을 투입한다. 어르신·아동·장애인 등 돌봄 대상별로 전문 대체 인력을 확보해 24시간 긴급 대체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에는 특별수당을 도입한다. /박경수 기자 gws0325@

한국노총 "민주당 신뢰 무너져"… 정년연장 압박

3차 고위급정책협의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법정 정년연장 입법과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등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등 관계자를 초청했으나 "민주당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돌아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3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오늘 65세 법정 정년연장, 초광역특구 조성, 공공기관 기능개편과 지방이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4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제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운을 띄웠다. 김 대표는 지난 9월10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 등 한국노총 관계자를 당사에 초청해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안을 두고 "지난해 연내 입법을 약속했지만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 과정들을 잘 아시고 현재까지 저희의 고민과 진전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초광역특구 조성은 현재 노사와 관계부처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논의를 저희들이 존중하면서 함께 한국노총과 대화를 해 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측은 정책연대를 유지하고 싶으면 법정 정년연장안 처리와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 폐지로 실천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박태홍 기자


요즘 일상
365일 안심되도록
KT닷컴에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지 않아도
간단한 인증만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t
더 빠르고 안전한 로그인,
패스키로 시작해보세요
다음에 하기
패스키 생성
아이디와 비밀번호 없이 편리하게 가입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새로 만들지 않고 본인 인증만으로
쉽고 빠르게 KT닷컴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내 폰으로 인증해서 안전하게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패스키 방식으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패스키 : 휴대폰에 등록된 지문, 얼굴 인식, 패턴, PIN 번호로 웹/앱에 로그인하는 방식
안심365
kt

금융지주사 '셀프 연임' 어려워진다
임추위·주주총회 문턱 단계적 상승

금융당국, 지배구조 개선 본격화
연임 횟수별로 의결 요건 차등
임추위 독립성·검증 책임 강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CEO)의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한 지배구조 수술을 본격화한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됐던 '3연임 금지법'과 달리 연임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지만, 연임 횟수별로 의결 요건을 차등화해 연임의 문턱을 높인다. 금융지주사의 경영 자율성은 보장하되, '이유 없는 연임'은 어렵게 만들어 지배구조의 투명성도 확보한다는 목표다.

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일부 여당 및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는데, 이번 정부안을 바탕으로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이 논의되는 배경으로는 금융지주사의 '셀프 연임' 논란이 꼽힌다. 그간 금융지주사들은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현직 회장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배제하고 이사회를 사유화해 연임을 이어가는 '셀프 연임'이 관행이 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금융지주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놓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3연임 도전 시 '75% 찬성' 문턱**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현직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및 주주총회 의결 문턱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부분이다.

기존에는 회장 후보 추천 시 연임 여부와 관계 없이 출석 의결권의 과반을 확보해야 했다. 이번 방안이 적용되면 첫 연임은 주총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를, 3연임은 4분의 3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동일인 보유 제한을 고려한다면, 지배주주는 물론 소수주주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야만 3연임이 가능해지도록 연임 문턱이 크게 높아진다.

당초 국회 일각에서는 법으로 대표이사의 연임을 최대 1회(총 6년)로 제한하고, 3연임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발의된 바 있다. 다만 금융위는 법적 원천 금지가 금융회사의 경영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연임이 불가능하도록 해, '성과 없는 연임'을 불가능하게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 **승계과정 투명성 강화**

이번 개선안은 승계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직 회장의 영향력도 제한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개시된 이후 현직 회장이 임추위원인 사외이사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접촉 사유와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내부 후보군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밀실 만남'을 제한해, 현직 CEO가 이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최소화한다.

독립이사제를 통한 임추위의 독립성 확보도 추진한다. 전(全) 금융회사에 독립이사제를 도입하도록 정하고,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는 모두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한다.

임추위의 검증 책임도 강화한다. 임추위원장은 주총에서 후보 추천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경영승계 관련 주총 소집 시에는 임추위 위원 전원이 서명한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임추위원장에게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지정하는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임도 부과한다.

이번 개선안은 올해 초 출범했던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의 세부 내용과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우선 여당과 당정협의에서 개선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포스코이앤씨, 3분기 흑자전환 성공

전년동기대비 매출 증가·수익성 개선


포스코이앤씨 사옥 전경.

포스코이앤씨가 올해 3분기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소폭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늘었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가 전날 발표한 포스코이앤씨의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조7630억원, 영업이익은 48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이익은 130억원이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1조4080억원보다 3550억원(25.2%) 증가했다. 전분기 매출 1조7690억원과 비교하면 60억원 감소했다.

영업손익은 지난해 3분기 1950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전분기 영업이익 440억원보다는 40억원 늘었으며,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순손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 1860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다만 전분기 순이익 310억원보다는 줄었다.

포스코홀딩스는 "혹서기 작업일수 감소로 매출이 소폭 감소했으나, 수익성 중심의 프로젝트 관리로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건축 분야에서는 1조4000억원 규모의 동탄 주상복합을 비롯해 광명하안 재건축, 분당 한솔6단지 리모델링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로 3조8000억원을 확보했다.

플랜트 분야는 그룹사 공정 촉진과 폴란드 소각로 지체상금 감면에 따른 매출 증가로 이익이 개선됐다. 고창 해상풍력과 그룹사 물량 등 약 6000억원 규모의 일감도 수주했다.

/이현진 기자 lhj@

국토부,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편

맞춤형 입지 추천·스마트폰 확인

앞으로 공장 지을 땅을 찾기가 쉬워진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후보지의 규제와 인허가 요건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부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에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을 더하고 스마트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사전진단 서비스는 공장 후보지의 관련 법령과 규제를 분석해 설립 가능 여부를 알려준다. 3차원 공간정보 위에서 건물 배치, 토공량, 경사도, 건폐율·용적률을 시뮬레이션할 수도 있다.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 K-GeoP)과 산업부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을 연계해 지난해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개편으로 업종과 지역 특성에 맞춰 최적의 공장 설립 입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이 고도화됐다.

기존에 입지를 단순 진단했다면 앞으로는 공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입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장 설립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인구역동성 등의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공장 입지 최적지를 자동으로 추천 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업종과 원하는 위치·면적·지목·공시지가를 입력하면 세부 주소까지 한 번에 나온다.

이와 함께 현장 조사를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규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사전진단은 PC로만 가능했다.

서비스는 4일부터 사흘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K-지오(Geo) 페스타(Festa)'에서 체험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GTX-A, 내년 상반기 삼성역 구간 무정차 전망

국토부, 구간 기둥 보강방안 2개 압축
김태병 철도국장 "연내 최적대안 결정"



GTX-A 노선도. /메트로신문 DB

국토교통부가 철근이 누락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삼성역 구간 기둥의 보강 또는 재시공 방안을 연내 결정한다. 보강 방안이 채택되면 GTX-A 열차는 내년 상반기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삼성역 구간 기둥의 시공 오류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보강 방안 12개 후보를 2개로 좁혔다고 3일 밝혔다.

하나는 철근을 배치하고 고강도 모르타르(시멘트에 모래와 물을 섞어 만든 건축 재료)를 채워 기둥 단면을 넓히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고강도 모르타르로 기둥 단면을 넓히고 강판으로 보강하는 '합성보강' 방식이다.

학회는 철근 누락 규모가 커 기존 강판 보강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모형시험을 통해 보강재가 빈틈을 충분히 채우는지 확인하고 있다. 열차 운행에 미치는 영향과 내진 성능도 검토 중이다.

기둥을 철거한 뒤 다시 시공하는 방안은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가 별도로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는 GTX-A 무정차 통과는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안전성과 시공 여건, 공사기간을 고려해 공사와 영업시운전을 병행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구체적 일정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삼성역 시공오류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꼼꼼히 점검하고 검토하겠다"며 "연내 최적 대안을 결정하고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채리 기자 cr56@

우리은행, 'Supply-One 보증' 출시

中企 상거래 데이터 활용 맞춤형 대출

우리은행과 신보가 중소기업의 상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대출을 공급한다.

우리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0월 체결한 '상생 공급망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의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Supply-One 보증'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Supply-One 보증'은 우리은행의 공급망 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내 '원비즈 e-MP' 서비스에 등록된 구매기업의 발주정보를 신보의 보증심사 시스템과 연계해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보증 신청은 우리은행 '원비즈 e-MP'와 신보의 'On-Biz'를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해 편의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구매시스템과 연동되는 '원비즈 e-MP'의 발주정보를 활용해 우리은행이 발주정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공하면 신보가 이를 보증심사에 활용해 보증서를 발급한다. 우리은행은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며, 납품 전 필요한 생산자금도 판매기업에 지원한다.

우리은행과 신보는 이번 상품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우리은행 공급망 금융 플랫폼 이용 기업 가운데 구매기업이 추천한 판매 중소기업이다.

보증 한도는 구매기업과의 연간 거래금액의 2분의 1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제공된다. 또한 한도 내에서 개별 발주계약 금액의 80% 이내에서 건별로 보증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대출금리 우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신보는 보증비율 100% 적용과 보증료율 0.4%포인트(p)의 차감 혜택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안승진 기자

상습체불건설업체, 공공기관 하도급 제동

국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가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을 맡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반복적인 대금 체불에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그쳤던 제재를 강화해 영세 하도급 업체와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상습체불건설사업자를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해 반복적인 체불 행위에 실질적인 영업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상습적인 체불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현대차, 제네시스 생산라인 멈췄다… 신차 인력 배치 '갈등'

울산 5공장, 시험차 투입 놓고 충돌
맨아워 협의 난항에 생산 차질 발생
스마트팩토리 전환에도 갈등 우려
내수 판매 15.6% 감소에 악재 겹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내수 판매 부진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울산공장 제네시스 생산라인마저 노사 갈등으로 멈춰 서면서 악재가 겹쳤다. 신차 투입을 둘러싼 인력 배치 문제가 생산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울산공장의 스마트팩토리 전환과 생산 효율화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 5공장 1라인 제네시스 의장부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가동이 멈춘 상태다. 회사가 제네시스 G80 하이브리드 시험 차량을 생산라인에 투입하려 하자 노조 대의원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해당 부서 조합원은 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신차 양산을 앞두고 진행된 맨아워(MH·생산에 필요한 노동 투입량) 협의다. G80 하이브리드와 G90 부분변경 모델의 양산을 앞두고 회사 측은 공정 변화에 따른 인력 배치와 작업량 조정을 논의하려 했지만, 노조 현장 대의원들이 생산라인 투입 인원 감소 가능성을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문제는 이번 노사간 갈등이 단순히 특정 차종의 생산 일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대차는 울산공장을 미래 모빌리티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생산공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가 공개한 로드맵을 보면 2026년 울산 EV 신공장을 시작으로 제조 AI를 확대하고, 2030년 가상 기반 자율 제조 시스템을 고도화한 뒤 2032년 이후 휴머노이드와 전면적인 자율화 기술을 미래 신공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자동화 설비와 로봇 도입, 생산공정 최적화 등을 통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생산 효율화가 기존 인력의 업무 변화나 인원 재배치로 이어질 경우 맨아워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스마트팩토리는 단순히 설비를 자동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 방식과 작업 구조 전반을 바꾸는 과정이다. 신차 투입 때마다 공정별 적정 인력과 작업량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만큼 노사 간 사전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생산 차질이 상시적인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전동화와 하이브리드 전환에 따른 생산라인 변화까지 고려하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사태로 인한 부담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근 내수 시장에서 판매 감소와 수요 둔화에 대응해야 하는 데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관세와 경쟁 심화 등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현대차는 올해 노조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등으로 올해 1~10월 누적 국내 판매량 49만 7223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래 생산체계 전환에 앞서 현대차 노사 간 인력 운영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마트팩토리 전환이 투자와 설비 도입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생산 효율화에 따른 고용과 업무 변화에 대한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와 달리 인력 재배치 문제로 생산라인 자체가 멈춰 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생산시설과 작업환경에 대한 노조의 의견은 존중돼야 하지만, 공정 효율화와 인력 운영 등 경영 판단까지 제약받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생산을 지속할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팩토리 전환과 미래차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노사 모두 생산성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럽 냉장설비 해킹에 국내가전 보안 '주목'

삼성·LG, 제품별 보안지원 기간 달라
EU, 5년 이상 지원·종료일 공개 의무
국내 최소 지원기간 없어 기준 마련 과제

유럽에서 냉장설비 해킹이 잇따르면서 국내 가전의 판매 후 보안지원 기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내 일부 가전은 출시일부터 지원기간을 산정해 구매 시점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진다. 특히 현행 보안인증 규정에 공통 최소 지원기간이 없는 만큼, 이를 명시하고 구매 전에 지원 종료일을 공개하는 방안이 과제로 꼽힌다.

3일 미국 보안업체 센시스(Censys)에 따르면 스웨덴과 벨기에, 아일랜드 등에서 유통 매장의 냉장·냉동설비를 겨냥한 공격이 확인됐다. 아일랜드 식품 유통업체 머스그레이브는 슈퍼밸류 매장 13곳에서 냉장설비에 이상이 생겨 일부 냉장식품 판매를 중단했다.

앞서 프랑스에서도 냉장설비 원격 제어장치가 해킹됐다. 프랑스 침해사고대응팀(CERT-FR)은 보안 패치 지원이 끝난 장비는 초기화한 뒤에도 다시 공격받을 수 있다며 외부 접속 차단을 권고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의 해킹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2021년에는 아파트 월패드 해킹으로 일부 가정의 실내 영상이 유출됐고, 지난해에는 인터넷 카메라에서 탈취한 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피의자들이 검거됐다.

◆삼성·LG 일부 가전, 출시일부터 업데이트 지원

문제는 국내 가전업계의 판매 후 업데이트 지원기간이 제품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일부 냉장고와 세탁기에 출시일부터 최대 7년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LG전자는 영국에서 판매하는 일부 연결형 냉장고의 보안 업데이트 지원기간을 출시일부터 5년으로 제품 페이지에 명시했다.

제품별 지원 정책과 별도로 국내에서는 자율 보안인증을 통해 업데이트 체계를 평가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인증을 신청한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업데이트와 기술지원 체계를 심사한다.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인증 조항에는 연결 가전에 공통으로 적용할 최소 지원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

◆EU는 지원 종료일 공개 의무화… 국내는 공통 기준 과제

유럽연합(EU)은 사이버복원력법(CRA)에 제조사의 판매 후 보안지원 의무를 명시했다. 제조사는 제품의 예상 사용기간을 반영해 원칙적으로 5년 이상 보안을 지원해야 한다. 예상 사용기간이 5년 미만이면 그 기간에 맞출 수 있다. 소비자가 구매 전에 남은 지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종료일도 공개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사물인터넷 기기에 공통 보안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교통 등 고위험 분야부터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통 기준을 연결 가전의 판매 후 관리까지 확대할 경우, 제조사가 취약점을 수정해야 하는 최소 기간과 구매 전 지원 종료일 공개 여부가 쟁점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G엔솔, 북미 ESS 날개달고 분기 최대 매출

3분기 매출 9.6조·영업익 7560억
美 보조금 제외해도 3391억 흑자

LG에너지솔루션이 에너지저장장치(ESS) 판매 급증에 힘입어 3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북미를 중심으로 ESS 출하가 늘면서 공장 가동률이 개선됐고 영업이익도 크게 늘었다. 빅테크 기업과 첫 ESS 직접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관련 수주도 이어지면서 북미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춘 LG에너지솔루션의 ESS 시장 입지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9조6434억원, 영업이익 7560억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9%, 영업이익은 25.7% 증가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7.6%, 영업이익은 567.3% 늘었다.

이번 실적 개선은 북미 ESS 출하 확대가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3분기 ESS 출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에서 ESS 셀 생산 라인과 컨테이너형 시스템 조립 공정인 신규 '링크(Link)' 라인을 추가로 가동해 현지 공급 대응력을 높였다.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 판매 물량도 파우치형과 원통형 모두 늘었고 폴란드 공장 가동률 개선과 ESS 신규 양산 공장의 생산성 향상까지 더해지며 수익성이 개선됐다.

북미 생산 보조금 효과를 제외하고도 흑자를 냈다. 3분기 영업이익에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 북미 생산 보조금 4169억원이 반영됐다. 이를 제외해도 339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보조금 없이도 배터리 사업 자체에서 이익을 내는 구조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관희 기자 wkh@

기아, 日 PBV 시장 공략

2030년까지 PV5 1000대 공급 추진

기아가 일본 여객 운수업체 MK 홀딩스와 협력해 현지 목적기반차량(PBV) 시장 공략에 나선다. 택시와 공항 픽업 등 운송 서비스를 중심으로 차량 공급을 확대하고 현지 판매·정비망을 구축해 일본 상용 전기차 시장 진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아는 최근 서울 양재사옥에서 MK 홀딩스와 'PBV 일본 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기아는 올해 말까지 MK 홀딩스에 PV5 40대를 공급하고 2030년까지 누적 1000대 공급을 추진한다. 현재 PV5 4대는 지난달 말부터 교토 지역에서 MK택시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다. /양성운 기자

한국타이어, 북미 SUV·픽업트럭 시장 확대

美 세마쇼서 다이나프로 4종 전시

한국타이어가 북미 최대 자동차 부품 박람회에서 SUV·픽업트럭용 타이어를 선보이며 현지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한국타이어는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세마쇼'에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세마쇼는 미국 특수장비시장협회(SEMA)가 주관하는 자동차 애프터마켓 박람회다. 자동차 부품과 튜닝 분야의 최신 기술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행사로, 한국타이어는 2023년부터 4년 연속 참가한다.

한국타이어는 야외 전시장에서 SUV 전용 타이어 브랜드 '다이나프로' 부스를 운영한다. 오프로드용 '다이나프로 MT2'와 '다이나프로 AT2 익스트림', '다이나프로 XT'를 비롯해 온로드용 '다이나프로 HT2' 등 4개 제품을 전시한다. 전천후 랠리용 타이어 '다이나프로 R213'을 장착한 월드 랠리 챔피언십(WRC) 공식 랠리카와 다이나프로를 적용한 오프로드 커스터마이징 차량도 전시한다. /이승혁 기자 sh85@



2026 세마쇼 한국타이어 부스. /한국타이어

대한항공, 美행 승객 에볼라 서약서 의무화

美 CDC, 바이러스 유입 차단 강화
21일 내 콩고 방문 땐 탑승 제한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에볼라바이러스 감염과 사망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제사회의 보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치명률이 50%에 육박하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지자 미국이 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으며, 국내 항공업계도 미국행 승객을 대상으로 감염 위험지역 방문 이력 확인 등 방역 조치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오는 4일 오후 1시59분 출발편부터 미국행 항공편 승객을 대상으로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DRC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9066명, 사망자는 4381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48.3%에 달한다.

CDC는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 승객에게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체류 이력이 없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승무원과 미국을 경유하는 환승객도 제출 대상이다.

DRC 내 공항에서 항공편을 갈아타거나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환승한 경우에도 체류 이력에 포함된다.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승객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해도 탑승이 제한된다. /양성운 기자

“해양서 이뤄지는 국제물류… 해수부로 주무부처 이관해야”

국제물류 애로 청취 현장간담회
최승재 中企 옴부즈만 등 참여
現 국토부·해수부·관세청 등 걸쳐
업무 모아 ‘물류청’ 신설 목소리도
중소 포워더 전용 바우처 등 건의



지난 2일 인천 영종 자이언트네트워크그룹 인천국제물류센터에서 열린 ‘중기부 옴부즈만지원단 국제물류 애로 청취 현장간담회’에서 (왼쪽 6번째부터)최승재 중기 옴부즈만, 원제철 한국국제물류협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국제물류업계 간담회 자리에서 국제물류를 관장하는 주무부처를 국토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강력하게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물류주선업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수출 첨병 역할을 하는 ‘포워더(forwarder)’를 포함해 국제물류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가칭) ‘국제물류특별법’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운영방식을 ‘사후정산’에서 ‘일반정산’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제물류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중소 포워더를 위한 전용 물류 인프라 바우처를 신설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3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국제물류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천 영종 자이언트네트워크그룹 인천국제물류센터에서 ‘중기부 옴부즈만지원단 국제물류 애로 청취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과 정병규 중소기업 규제개선 국장 그리고 업계에선 원제철 자이언트네트워크그룹 회장 겸 한국국제물류협회장 등 10여 명이 함께 했다.

원제철 회장은 “국제물류는 현재 국토부, 해수부, 관세청 등에 걸쳐 있다. 부처간 이견도 적지 않다. 국제물류는 99%가 해양에서 이뤄진다. 그런만큼 현재 국토부가 하고 있는 국제물류 업무를 해수부가 맡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물류업계에선 갈수록 커지고 있는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무총리 산하에 물류혁신위원회를 두거나 궁극적으론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물류 업무를 모아 ‘물류청’을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국해사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권오인 고려종합국제운송 대표는 “국제물류는 산업이다. 그런데 한국은 ‘주선’이라고 부르고 ‘국제물류주선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주선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물류를 산업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데서 문제점이 출발한다”며 “제조는 (수출을 위해선) 물류와 함께 가야한다. 약 8만개에 이르는 화주기업은 뛰어다니는데 5000여 개의 국제물류기업을 걸어다니게 해선 안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권 대표는 “국제물류는 절반이 해외다. 소관부처를 국토부에서 해수부로 바꾸고 싶어도 (국토부가) 놔주질 않는다. (특별)법도 안만들어준다”고 꼬집었다.

국제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체는 5578개에 이른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국제물류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포워더는 물류를 맡길 조직이 없는 수출 중소기업 입장에선 내부 물류팀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품이 포워더를 통해 세계로 나가는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물류는 제조현장 만큼 중요한 경제의 또다른 현장”이라고 말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은 현재 각 시·도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등록 등의 업무를 지자체에 넘겼다. 이에 따라 업체들 난립과 중국 회사들의 무차별 진출로 가격 덤핑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게 업계의 우려다.

국제물류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등록한 중국 국적 물류주선업체는 107곳인데 이 가운데 정상 영업하고 있는 곳은 절반이 다소 넘는 57곳 뿐이다. 전화번호가 없거나 연결이 되지 않는 곳, 그리고 파악이 안되는 업체가 총 50곳에 이른다.

중소 포워더들을 위한 전용 물류 인프라 바우처 신설, 포워더 운임보전 직접지원 바우처 신설 등의 건의도 나왔다.

이주용 TY로지스틱스 대표는 “임직원이 9명인 우리 회사만해도 IT 플랫폼과 해외 진출을 위한 거점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투자는 회수 기간이 긴 고정비 투자라 운임 변동성이 큰 시기엔 속도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등록·실적을 갖춘 포워더를 대상으로 IT 시스템, 해외 거점, 전문 인력 투자를 정부(50%)와 기업(50%)이 매칭하는 구조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인천=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현대차, ‘그랜드 블루핸즈’ 30개소로 확대

〈2029년까지〉

기존 블루핸즈 활용·신규 거점 조성
시설 구성 따라 일체형·분리형 운영

현대자동차가 고객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대형·고급 정비 거점인 ‘그랜드 블루핸즈’를 확대한다.

현대차는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현대서비스 개소를 포함해 전국 17개소의 그랜드 블루핸즈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9년까지 총 30개소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그랜드 블루핸즈는 기존 블루핸즈를 활용하거나 신규 거점을 조성해 운영하는 대형 서비스 시설이다. 일반 블루핸즈보다 넓은 부지에 최신 정비 설비와 고객 편의 공간을 갖추고 보다 폭넓은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랜드 블루핸즈는 현대차와 제네시스 각 브랜드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설 구성에 따라 ‘일체형’과 ‘분리형’



인덕원현대서비스 제네시스 전용관 정비 공간의 모습. /현대차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일체형은 하나의 건물 안에 현대차와 제네시스 브랜드별 고객 쉼터 및 정비 작업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며, 분리형은 브랜드별 전용 건물을 개별 조성해 차량 입고부터 정비까지 각각의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개소한 인덕원현대서비스는 현대차와 제네시스 전용 건물을 각각 갖춘 분리형 그랜드 블루핸즈다.

현대차는 현재 수도권 7곳, 호남권 4곳, 충청권 3곳, 경상권 2곳, 강원권 1곳 등 전국 주요 권역에 총 17개의 그랜드 블루핸즈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는 향후 서비스 네트워크 공백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을 추가해 고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상품 경쟁력뿐 아니라 차량을 보유하는 전 과정에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랜드 블루핸즈를 지속 확대해 쾌적하고 전문적인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현재 전국 22개 하이테크센터와 1204개 블루핸즈 등 총 1226개의 서비스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용인시 기흥구에 고난도 정비 전문 시설인 수원하이테크센터를 개관하는 등 서비스 역량 고도화에도 나섰다. /양성운 기자 ysw@

샤오펑, 韓 사업 수장에 이만식 전무 선임

볼보 출신 영입해 국내 사업 본격화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XPENG)이 볼보자동차코리아 출신 인사를 한국 사업 수장으로 영입하며 국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BYD와 지커에 이어 샤오펑까지 국내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의 한국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엑스펑모터스코리아는 3일 이만식 전 볼보자동차코리아 커뮤니케이션 및 커머셜 총괄(전무·사진)을 신임 한국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사업을 이끌 예정이다.

이 신임 대표는 자동차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경력을 시작해 영업과 마케팅, 제품 전략,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딜러 네트워크 개발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경험을 쌓았다. 특히 2003년 볼보자동차코리아에 합류 이후 약 23년간 근무하며 볼보의 국내 시장 안착과 성장을 이끌었다. 그는 연간 판매량을 1만대에서 1만5000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중장기 성장 전략과 딜러 네트워크 확충, 고객 서비스 개선 등을 주도했다.

샤오펑은 이 대표의 국내 시장 이해도와 프리미엄 수입차 브랜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업 기반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판매·서비스 네트워크 구축과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 접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포스코퓨처엠-현대차, 베트남 인조흑연 음극재 사업 협력

베트남 생산거점 확대 ‘속도’

포스코퓨처엠이 현대자동차그룹과 베트남 인조흑연 음극재 사업 투자 협력을 추진하며 해외 음극재 생산 거점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이 빨라지는 가운데 양사가 투자부터 개발까지 손을 맞추면서 안정적인 배터리 소재 공급망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퓨처엠은 현대차그룹과 베트남 인조흑연 음극재 사업 협력을 위한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포스코퓨처엠의 베트남 인조흑연 음극재 사업에 1000억원 규모의 지분투자를 검토하는 한편 현지 공장에서 생산될 제품의 우선구매권 확보를 추진한다. 양사는 전기차 요구 성능에 맞춘 인조흑연 음극재 선행 개발과 품질 평가에서도 협력한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투자의향서를 계기로 베트남 생산시설 건설에 한층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우선구매권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인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은 포스코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4월 맺은 ‘철강 및 이차전지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인조흑연 음극재는 배터리의 급속충전 성능과 수명을 높이는 데 유리한 소재로, 전기차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미국의 금지외국기관(PFE) 요건 도입과 유럽의 산업가속화법(IAA) 발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빨라지면서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핵심 소재로도 꼽힌다.

포스코퓨처엠은 공급망 다변화 수요에 대응해 베트남에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약 3570억원을 투자해 타이응웬에 공장을 착공했으며, 2028년 양산을 목표로 1단계 투자분에 대한 고객사 수주 계약을 마쳤다. 현재는 2단계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中企, AI 필요성 알지만 계획수립은 ‘미미’

메인비즈협회 ‘中企 AI 실태조사’
17.6%만 구체적 추진계획 가져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인공지능(AI) 도입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은 10곳 중 2곳에 못 미쳤다.

AI 도입을 위해 가장 절실한 정책으로는 대부분이 ‘AI 솔루션 도입·구축 비용 지원’을 꼽았다.

이같은 내용은 메인비즈협회가 메인비즈 인증기업 307개사를 대상으로 ‘2026 중소기업 AI 도입·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해 3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1.4%는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AI 도입·활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2년 이내 도입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곳’은 고작 17.6%에 그쳤다.

AI 도입 과정에서 겪는 주요 애로사항은 단계에 따라 차이가 컸다.

도입 검토·준비 단계에선 ‘적합한 AI 활용사례 부족’(49.2%)과 ‘기대효과·투자성과 불확실’(31.6%)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구축·실증 단계에서는 ‘업무 특성에 맞는 시스템 수정의 어려움’(44.6%)과 ‘기존 시스템·데이터 연계의 어려움’(38.5%)이, 실제 활용 단계에서는 ‘사용료·유지비 등 추가비용 부담’(47.1%)과 ‘AI 결과물 검토·활용 역량 부족’(37.3%)이 주요 어려움으로 조사됐다

이는 AI 도입 초기 활용사례 발굴부터 시스템 구축·연계, 운영비용 및 활용역량 확보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승호 기자


HOOKKA HOOKKA STUDIO®
후카후카스튜디오 | ふかふか スタジオ | 呼卡呼卡
chef muu
メロンパン
10EA
カメ
10KG
トマト
fish house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AI 토큰으로 새 수익원 찾는 통신업계… '실효성' 시험대

통신 3사, AI 토큰 사업 진출
토큰 비용 낮추기만으론 한계
성과 기반 과금하는 방식도 주목

통신업계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AI 토큰 서비스'를 낙점했다. 다양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한곳에 모아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해온 기존 통신 사업과 닮았다.

다만 과금 사업이 곧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지는 미지수다. 기업 고객이 AI 서비스를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SK텔레콤·LG유플러스는 최근 'AI 토큰'을 새로운 수익 모델로 삼고 시장 공략에 나섰다. 토큰은 생성형 AI가 데이터를 처리할때 자연어를 인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 토큰 사용량은 AI 모델의 추론 비용과 직결된다.

이에 통신 3사는 비용 절감을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KT가 지난 30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시작한 AI 토큰 플랫폼 '토큰팩토리' 서비스는 최적의 AI 모델을 찾아주고 그에 따른 토큰 비용을 과금한다.

앞서 '토큰 게이트웨이' 사업 구상을 발표한 SK텔레콤도 향후 엔비디아와 추진하는 'AI 팩토리' 등 그룹 내 인프라를 활용해 효율을 극대화 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또한 그룹사와 스마트폰 환경에서 AI 토큰 최적화 기술 연구를 지속하며, 서비스 확장을 위한 채비를 하고 있다.

다만 고객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제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기존 데이터 과금 사업 모델은 인터넷 이용 환경을 유료로 제공한 것에서 부터 시작했다. 시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얻는 실익이 증명되면서 수익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KT도 지난달 27일 발표한 토큰팩토리 사업 계획에서 주된 수익 모델이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AI 모델에 부가서비스를 더한 상품 구성과 직접 계약을 통해 공급하는 대표 AI 모델 7종을 사례로 들었다.

토큰당 가격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에 최고 성능의 AI 모델이 존재하는 이상 가격 경쟁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이 토큰 요금제를 사용해 창출한 성과를 기반으로 과금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미국의 엔터프라이즈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시에라는 토큰이 아니라 업무 결과에 따라 지불하는 성과 기반의 모델을 운영 중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경선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AI 서비스의 과금 방식은) 과업과 성과 등 다양한 단위로 가격을 제시하는 구조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배우는 속도, 입소문도 남달라… 한국서 가능성 확인"

빛나는 인터뷰

마 주 연 듀오링고코리아 대표

높은 서비스 이용률·빠른 진도 주목
캐릭터 '듀오' 활용, 학습 참여 유도

"한국 사람들은 서비스를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말 빨리 떠나거든요. 그런데 듀오링고는 달랐어요.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서비스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마주연 듀오링고코리아 대표는 최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 시장을 이야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네이버와 라인, 넷플릭스, 게임업계 등을 거치며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한 그에게도 한국 이용자들의 듀오링고 활용 방식은 특별했다.

마 대표는 "한국 이용자들은 일간 활성 이용자(DAU) 지표가 높고 학습 진도도 굉장히 빠르다"며 "새로운 기능을 빠르게 익히고 친구들에게 추천하거나 소셜미디어에서 콘텐츠를 확산하는 속도 역시 인상적"이라고 설명했다.



마주연 듀오링고코리아 대표가 〈메트로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듀오링고의 캐릭터를 소개하다. /메트로경제신문

듀오링고는 언어 학습을 게임처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글로벌 교육 플랫폼이다. 무료 이용을 기본으로 하며, 광고와 유료 구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최근에는 언어를 넘어 수학과 음악, 체스 등으로 교육 영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초록색 부엉이 캐릭터 '듀오'를 활용한 독특한 소통 방식은 듀오링고의 강점이다. 학습하지 않으면 이용자를 재촉하는 알림을 보내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유행하는 춤을 추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며 존재감을 드러낸다.

마 대표는 "앱 안에서는 학습을 격려하지만 앱 밖에서는 '너희가 공부하러 오지 않으니 우리가 찾아가겠다'는 전략"이라며 "복귀 혜택을 내세우기보다 사람들이 웃다가 자연스럽게 듀오링고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흥미로운 점은 듀오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캐릭터는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용자들이 알림을 캐릭터가 직접 보내는 메시지처럼 받아들이면서 듀오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발전했다.

듀오링고가 최근 공을 들이는 분야는 인공지능(AI)이다. 특히 AI 캐릭터 '릴리'와 외국어로 화상 통화를 하는 기능은 기존 회화 교육과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마 대표는 "외국인 친구와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문법을 하나하나 지적하지는 않는다"며 "틀릴 때마다 위축되면 결국 말을 하기 싫어진다. AI와의 대화에서는 그런 부담을 줄여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네이버
AI 탭 국제표준 인증

네이버가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서비스 'AI 탭'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며 에이전틱 AI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에 나섰다. AI 탭은 이용자와 여러 차례 대화를 주고받는 멀티턴 대화와 개인화 기능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예약과 구매 등 실제 행동까지 연결하는 에이전틱 AI 검색 서비스다.

네이버는 AI 기반 검색과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탭'이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2023'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 제정한 AI 분야 최초의 국제 경영시스템 표준이다. AI 시스템의 개발과 제공, 운영 과정에서 거버넌스와 위험관리, 보안, 윤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를 평가한다.

네이버에 따르면 대규모 이용자가 사용하는 검색 기반 에이전틱 AI 서비스에 대해 해당 인증을 받은 것은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이다.

이번 인증을 통해 네이버는 AI 탭의 검색부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서비스 전반에 걸친 안전 관리 체계를 제3자 검증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았다. 특히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제공 등 두 영역 모두 심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빛나 기자

NC AI, 로봇 시각 인식 '배키 비전3B' 개발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

NC AI가 로봇과 산업용 장비의 시각 인식을 지원하는 초경량 시각·언어모델(VLM) '배키 비전 3B(VAETKI Vision 3B)'를 개발하며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NC AI는 제한된 연산 자원에서도 높은 수준의 공간 인식과 추론이 가능한 경량 멀티모달 모델 '배키 비전 3B'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배키 비전 3B는 로봇과 산업용 엣지 디바이스에 직접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30억개 파라미터 규모의 모델이다. 주변 환경과 물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향후 시각·언어·행동(VLA) 모델과 월드모델로 확장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활용될 예정이다.

NC AI에 따르면 배키 비전 3B는 로봇 및 공간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벤치마크에서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을 기록했다. 다중 이미지 공간 지각(BLINK), 체화 추론(ERIQ), 체화 공간 추론(ERQA) 등 3개 평가의 평균 점수는 일반 응답 모드 기준 63.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큐웬3-VL 등 주요 글로벌 공개 모델 6종을 웃도는 수치다.

산업 현장에 특화된 영상 분석 기능도 갖췄다. 배키 비전 3B는 비디오 입력 시 4초 동안의 8개 프레임을 동시에 분석해 로봇의 움직임과 작업 대상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한다.

/최빛나 기자

SKT, 사내 AI 에이전트 발굴해 업무 혁신

경연대회 우수작 5건 선정

SK텔레콤은 3일 임직원 대상의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평가 경연대회 'AX 스파크' 파이널 행사를 열고 최종 우수작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SK텔레콤 임직원이 직접 개발해 사용 중인 AI 에이전트를 발굴 및 검증하는 인공지능 전환(AX) 실행 프로젝트다.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 간 출품된 에이전트(173건) 중 매달 예선을 거쳐 우수작 20건을 선정했다. 통신(MNO CIC), 인공지능(AI CIC) 사업 담당 등 전사 조직이 참여했으며, 외부 심사위원 및 구성원 투표 등을 통해 최종 후보 5건을 추렸다.

이날 정재헌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가 시상식에 참석한 가운데, 대상은 통합보안센터의 '엠-트리플A'가 차지했다. 이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 앱을 분석해 공격 서버를 자동 추적하는 에이전트다.


정재헌 SK텔레콤 CEO가 3일 열린 'AX 스파크' 행사에서 최종 후보 팀들의 발표를 듣고 심사평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이어, 최우수상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AT/DT) 센터의 '아틀라스'와 네트워크센터의 '파일론'이 뽑혔다. 해당 에이전트는 각각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 운영까지 자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하고, 전국 18만여 통신설비의 전기 사용량과 요금을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우수상은 SK텔레콤의 AI 모델인 에이닷 사업 담당의 '오토 LLM 저지', 'AI 서비스 운영 에이전트'에게 돌아갔다.

/조민선 기자

LGU+, 서울여대와 보안 인재 양성 협력

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협약

LG유플러스가 정보보호 미래 인재 육성에 나서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통신 데이터를 비롯한 공공·민간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결합 전후로 개인이 다시 식별될 가능성을 분석해 데이터 활용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양측은 민감정보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가명처리하는 기술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 성능을 검증한다. 서비스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반영하는 '프라이버시 by 디자인' 적용 방안도 공동 연구해 향후 실제 통신 서비스에 접목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노원구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오른쪽)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공동연구와 함께 미래 보안인재 양성에도 힘을 모은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해 교과과정 자문과 캡스톤 프로젝트, 공동 세미나 등을 추진한다. LG유플러스 전문가와 연구진은 강의와 대학원 논문 지도 자문, 현장 멘토링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장기보유 기관에 공모주 선배정… 상장 직후 매물부담 줄인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13일부터 시행
6·8·10개월 의무보유 매도 시점 분산
코스피 20%·코스닥 30% 사전 배정
상장 초기 매물 쏠림·주가 하락 완화
사전수요예측 허용해 공모가 합리화

〈현행 IPO시 공모주 배정 방법〉

구분	일반 청약자	우리사주 조합	기관투자자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	그 외 기관투자자
코스피	25%	20%	5%	-	50%
코스닥	25%	0~20%	10%	30%	15~35%

* 동 물량의 범위 내에서 상한비율을설정해 코너스톤투자자 배정

〈시장별 코너스톤투자자 수량상한〉

구분	코스피		코스닥	
	전체 한도	개별 한도	전체 한도	개별 한도
일반 기관 물량 중 비율	20%	10%	30%	20%
전체 공모 물량 중 비율 환산	10%	5%	4.5~10.5%	3~7%

상장 후 최소 6개월간 주식을 팔지 않기로 약속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를 미리 배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장기 투자자를 확보해 상장 직후 매물이 쏟아지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희망 공모가 범위를 정하기 전 기관투자자의 매입 의사를 확인하는 사전수요예측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래 보유할 기관에 사전 배정… 6·8·10개월 분산 보호예수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는 조건을 받아들인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 배정하는 방식이다. 상장 전에 중·장기 투자자를 확보해 투자자의 신뢰 형성을 돕고, 상장 직후 급격한 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전 배정을 받은 기관은 물량의 절반을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나머지는 전체 배정 물량의 30%를 8개월, 20%를 10개월간 보유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00주를 배정받았다면 50주는 6개월, 30주는 8개월, 20주는 10개월 동안 팔 수 없다. 보호예수가 한꺼번에 풀려 매도가 특정 시점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설계다.

참여 기관에는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가격 변동을 감당할 수 있는 재무 여력도 요구한다. 사전 청약 물량 규모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을 갖춰야 한다. 자기 돈으로 투자하면 자기자본을, 고객이 맡긴 돈으로 투자하면 위탁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관 규모에 일률적인 하한을 두는 대신 투자하려는 규모에 비례해 요건을 정했다. 대형 기관뿐 아니라 충분한 역량과 재무 여력을 갖춘 중소형 기관에도 참여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

사전 배정 한도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다르게 적용한다. 기준은 전체 공모주가 아니라 개인투자자·우리사주조합·정책펀드 배정분을 제외한 일반 기관투자자 몫이다.

코스피는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20%까지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기관 한 곳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0%다. 전체 공모 물량으로 환산하면 코너스톤투자자 전체에 최대 10%, 기관 한 곳에 최대 5%를 사전 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코스닥은 일반 기관투자자 물량의 30%까지 사전 배정하고, 기관별 한도는 20%로 정했다. 코스닥은 공모 규모가 작고 코스닥벤처펀드 등 정책펀드에 별도로 배정하는 비중이 커 코스피보다 한도를 높였다. 전체 공모 물량 대비 사전 배정 한도는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중 등에 따라 4.5~10.5%다.

계열사에 유리한 공모주를 몰아주거나 흥행이 어려운 공모주를 떠넘기는 행위도 차단한다. 대주주·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와는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맺을 수 없다. 사전 배정을 조건으로 직접적·간접적 이익을 주고받는 이면계약도 금지한다.

◆공모가 범위 정하기 전 기관 수요 확인… 가격 산정 합리성 높인다

함께 도입되는 사전수요예측은 상장 주관사가 희망 공모가 범위를 정하기 전에 기관투자자에게 매입 희망 가격과 물량을 물어보는 절차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부터 시장 수요를 확인해 공모가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주관사는 기업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자격을 갖춘 기관에 향후 증권신고서로 공시할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다루는 만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제공한 시점과 상대방·내용 등을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계약을 어겨 제3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하게 하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참여 자격은 대체로 기존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수준으로 정했다. 다만 일반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일임업자는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 수요예측에서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위탁재산 요건을 50억원으로 낮춰주는 예외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가치 평가 능력과 미공개정보 관리 역량 등을 확인하는 추가 요건도 금융투자협회 규정으로 마련한다.

금융위는 사전수요예측을 통해 희망 공모가 범위 설정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반영하고, 코너스톤투자자로 안정적인 기관투자자를 확보해 IPO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금융권 해킹 사고, CEO 책임 엄중히 물을 것"

이찬진 금감원장, 보안 강화 지시
보안 부실 땐 매출 3% 과징금 추진
해킹 사고별 감독분담금 차등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해킹 사고가 발생한 대형 증권·보험사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보안 취약점을 방치해 사고가 난 금융회사에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 원장은 3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한 업권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안 강화 방안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해킹 공격이 은행·증권·보험 등 전통 금융회사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는 업권으로도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서는 금전 피해까지 발생해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봤다.

이 원장은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전방위적·동시다발적·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 위협과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식별·대응하는 전사적 차원의 자율보안 체계를 조속히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IT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고객 신뢰 확보의 근간이자 핵심 생존 전략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내년도 보안 예산·인력 확충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통합관제시스템(FIRST) 등을 통해 기본 보안 통제 미흡점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AI 에이전트 기반 사이버 공격 유의 등을 안내해 왔다. 침해 사고가 본격화된 뒤에는 금융권 전체에 긴급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하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등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 원장은 사고 발생 회사가 사전 안내 사항을 준수하고 자체 점검을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면밀히 확인하도록 했다. /허정윤 기자

한양증권, 개인정보 유출에 내부통제 강화

분기별 '윤리준법의 날' 지정·운영
전 임직원 19개 항목 자가점검 실시

한양증권이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나선다. 외부 그룹웨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임직원이 윤리원칙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한양증권은 올해부터 1·4·7·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윤리준법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윤리준법의 날에는 전 임직원이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자가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내부통제와 개인(신용)정보,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보호 등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업무 과정에서 관련 원칙과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컴플라이언스 레터(Compliance Letter)를 통해 주요 제도 변경사항과 금융사고 사례 등 임직원이 숙지해야 할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운영은 최근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양증권은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 솔루션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고객과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 정보에는 계좌번호와 연락처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와 운전면허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됐다.

한양증권은 사고 인지 직후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솔루션 공급사와 긴급 보안 패치를 완료했다. 현재 정확한 유출 범위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계 기관 신고와 유출 대상 고객에 대한 개별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윤리준법의 날을 통해 임직원이 관련 원칙과 법규를 스스로 점검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기술특례상장 75%, 5년 수익률 코스닥 하회

자본연, 장기 주가성과 분석
평균 8.4%에도 중위값 -54%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75%가 상장 후 5년간 투자 성과에서 코스닥지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성장을 위한 코스닥시장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장기 주가성과를 분석하고 코스닥시장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기술특례상장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월 제도 도입 21년 만에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300개사를 넘어섰다. 누적 공모금액은 약 8조원이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사 가운데 5개사가 기술특례상장 기업이다.

분석 결과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일반 상장 기업과 재무적 특성부터 차이를 보였다. 상장 전 매출액 중위값은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85억원으로 일반 상장 기업(421억원)의 약 5분의 1 수준이었다. 총자산이익률(ROA) 중위값도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20.5%로 일반 상장 기업(14.1%)과 큰 격차를 나타냈다. 반면 업력 중위값은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10년, 일반 상장 기업이 11년으로 비슷했다.

다만 이들 기업의 장기 주가성과는 전체 평균과 개별 기업의 분포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올해 9월 기준 최근 5년 보유기간 초과수익률(BHAR)을 분석한 결과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평균은 8.4%로 일반 상장 기업(-5.4%)보다 높았다.

주목할 점은 중위값은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54%로 일반 상장 기업(-38%)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25% 분위 역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91%로 일반 상장 기업(-70%)보다 부진했다. 75% 분위에서도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8%에 그쳐 일반 상장 기업(20%)을 밑돌았다. 이는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75%가 5년간 코스닥지수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의미다. /신하은 기자

미래에셋재단, 청소년 250명 해외체험 지원

올해 세 차례 글로벌 문화체험단 운영
中 선전서 자율주행·드론 기술 체험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진행한 제29회 글로벌 문화체험단 일정을 끝으로 올해 사업을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세 차례에 걸쳐 청소년 250명이 참여했으며, 이번 일정에는 73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3박 4일 동안 비야디(BYD), 바이두 아폴로 전시관, DJI, 선전과학기술관 등을 방문해 자율주행과 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살펴봤다. 멘토와 함께 미래 기술을 자신의 진로와 연결해 보는 프로젝트 발표회도 진행했다.

글로벌 문화체험단은 청소년들이 해외에서 견문을 넓히고 미래 기술을 경험하도록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07년 시작해 지금까지 청소년 2636명에게 해외 탐방 기회를 제공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캠프가 청소년들의 미래 준비에 긍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더 넓은 무대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aT, 할랄한우 수출 영토 넓힌다… 중동 바이어 5개社 초청

UAE·카타르 수입·유통 바이어에
한우 생산·도축·가공 현장 소개
25건 수출상담, 5개社 업무협약
인니 자카르타서도 홍보관 운영


지난 10월 26~30일 동안 국내 할랄한우 가공시설을 찾은 중동지역 수입업체 관계자들.


지난 8월부터 3개월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할랄 K-푸드를 소개한 '2026 K-브랜드 해외농식품 홍보관' 모습. /aT

당국이 할랄한우 수출 계약의 본격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중동 지역의 수입·유통업체 5곳을 국내에 초청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할랄 K-푸드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동남아 할랄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aT는 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의 육류 수입·유통 바이어 5개사를 초청해 강원 횡성과 전남 해남 소재 한우 생산·도축·가공 현장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닷새간 수출상담 25건이 진행됐고, 그 결과 업무협약(MOU) 5건이 체결됐다.

지난 10월 26~30일 진행된 초청 행사에서 중동 업체들은 국내 한우 생산자단체 및 축협을 방문해 생산·유통 현황과 등급제도, 이력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횡성의 한우사육농가와 할랄 도축·가공시설을 찾아 사육환경부터 도축, 정형, 보관까지 수출 전 과정을 눈으로 확인했다. 또 한우 부위별 품평과 현지 메뉴 활용 시연을 통해 상품성을 평가하고, 국내 수출업체와 수출가격, 최소 주문수량 등 구체적인 거래 조건까지 협의했다. 해남에서도 한우 생산농가 및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해 프리미엄 한우의 생산·품질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수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해당 바이어 5개사는 UAE와 카타르에서 케이터링 식재료 유통, 온라인 판매, 소매유통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다. 연간 육류 수입 규모가 도합 1만3000톤(t)에 달한다. 오만에 본사를 둔 MLS라는 업체는 오만은 물론 UAE에서 유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카타르의 더푸드컴퍼니는 UAE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중동 역내 유통망을 활용한 한우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고 aT는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서 총 25건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국내 축협 4개사와 전남광주 소재 한우 농장 1개사 등 총 5개사가 업무협약(MOU)을 맺는 성과를 냈다. 특히 초청 바이어 5곳 중 4곳이 샘플 공급을 요청했고 꽃등심과 안심, 채끝 등 고급 부위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할랄 한우는 2023년 말레이시아에 이어 2025년 10월 UAE로 처음 수출되며 중동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UAE에 지금까지 총 40만 달러 상당의 한우가 수출됐다. 올해 9월에는 농식품부가 카타르 정부와 뼈 없는 냉장·냉동 쇠고기의 수출위생조건 협의를 마치면서 수출가능 대상지가 3개국으로 늘었다.

aT는 해외 수요조사부터 국내 할랄도축장 인증 지원, 수출협력체계 구축까지 한우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이어 오고 있다. 올해 9월에는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를 통해 두바이에서 한우 시식·홍보 행사를 개최해, 현지 셰프와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국산 한우의 우수한 품질과 맛을 알렸다.

이번 상담과 업무협약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샘플 공급 ▲초도 수출 물류 ▲현지 판촉 등 후속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등 아직 한우 수출을 위한 검역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재외공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검역 협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지 바이어 네트워크를 사전에 구축해 향후 시장 개방에 대비한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UAE와 카타르를 넘어 오만 등 중동 주요국에 유통망을 갖춘 바이어들과 수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앞서 aT는 지난 8~10월 3개월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2026 K-브랜드 해외농식품 홍보관' 운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 홍보관은 '8월 트렌디, 9월 프리미엄, 10월 할랄'을 월별 테마로, 매달 다양한 한국산 농식품을 소비자들이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지난달 24일에는 K-팝 아이돌 저스트비의 공연과 함께, 2026년 K-푸드 서포터즈 1기 30인의 해단식 및 우수 서포터즈 5인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인니 당국은 당초 2026년 10월18일부로 시행 예정이던 할랄인증 의무화 제도 관련해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2년 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에 수입식품에 대한 인증의무화 시행도 2028년 10월18일로 미뤄졌다.

aT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무슬림 인구가 2억5000만 명에 달하는 거대 할랄시장 인도네시아 공략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10억톤 '숨은 물그릇'으로 호우 피해 최소화

기후부, 기존 저수지·발전댐 등
홍수 조절용으로 적극 활용
AI 기반 홍수예보 체계로 예방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월 17일 경남 거제시내의 한 학교 운동장이 빗물에 잠겨 흙탕물로 변해 있다. /뉴시스

올여름 기록적인 국지성 집중호우와 국지적 가뭄이 교차하는 극한 기후 속에서도 정부가 선제적인 수자원 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숨은 물그릇 확보와 첨단 예보 고도화 덕분에 인명·재산 피해를 대폭 줄였다고 3일 밝혔다.

올여름은 지역별 강수 양상의 편차가 극심했다. 전국 여름철 강수량은 558.6㎜로 평년(727.3㎜)의 76.1% 수준에 그쳤고 장마철 강수량도 평년의 60.3%에 머물렀다. 반면 경남 거제시에는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968.1㎜의 물폭탄이 쏟아져 1시간 최다 강수량 124.5㎜로 기존 극값(104.0㎜)을 갈아치웠다.

비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면서 가뭄도 함께 찾아왔다. 9월 26일 기준 섬진강댐 저수율은 예년 대비 31.9%, 운문댐은 38.7%에 불과했다.

이 같은 복합 위기 속에서 기후부는 관계기관과 손잡고 농업용 저수지, 발전댐, 하굿둑 등 기존 시설을 홍수 조절용으로 적극 활용해 총 10억 4000만t의 '숨은 물그릇'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체계로 지류·지천까지 촘촘히 살피고, 서울 강남역·신대방역 등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침수예보' 시범사업을 도입해 예방 체계를 다졌다. 홍수취약지구 역시 지난해 799곳에서 올해 893곳으로 늘려 집중 점검했다.

기상청은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은 '슈퍼 엘니뇨' 현상의 여파로 이번 달에도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올여름 국지성 집중호우와 가뭄이 함께 나타난 것처럼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와 가뭄이 동시 발생하는 복합 재난이 심화할 수 있는 만큼 댐, 저수지, 하굿둑 등 수자원 시설을 보다 면밀히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더욱 긴밀히 구축·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남부발전과 탄소중립 등 '맞손'



부산항만공사와 한국남부발전 간 재생에너지 개발 협약식. /BPA

부산항만공사(BPA)가 3일 한국남부발전과 BPA 본사에서 '부산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탄소중립 항만 구축'과 '지속가능한 항만형 RE100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부산항 인프라를 활용한 육상풍력 공동개발을 통해, 부산항의 탄소중립 실현과 항만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추후 풍력발전 설비 도입을 위한 항만부지 제공, 항만 내 전력망 연결 등을 추진한다. 남부발전은 사업 타당성 분석을 맡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육상풍력 공동개발뿐 아니라 향후 해상풍력,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재생에너지 분야로 협력범위를 확대한다. 이로써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홍보

'한마당 축제' 찾아 가입·혜택 안내

근로복지공단이 문화예술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 홍보에 나섰다. 이들 전용의 고용·산재보험 상품이 있음에도, 혜택 등을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예술인 비중은 20% 안팎에 그쳤다.

공단은 3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마당 축제'를 찾아, '예술인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방법 및 주요 혜택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일하는 예술인이 실직하거나 출산으로 일을 쉬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직 시 최대 270일간 구직급여를, 출산 시 9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예술인과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예술인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 중 다치거나 업무로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치료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예술인들이 이러한 혜택을 정확히 알고 필요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3년째 이 행사에서 현장 홍보를 이어 오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연기자와 성우 등 조합원 1500여 명이 참여했다.

공단이 2024년 같은 행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91명 중 78.6%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자세한 내용까지 안다는 응답은 21.7%에 그쳤다. 예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을 자세히 안다는 응답도 15.9%에 머물렀다.

이에 공단은 참여자들이 제도를 친숙하게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과 1:1 상담을 함께 운영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공시의무 계속 위반하면 최대 50% 가중"

공정위, 오는 9일부터 시행
최초 위반 때 감경 규정도 삭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해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감경 기준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공시의무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종전에는 최근 5년간 4회 이상 위반 시에만 10~20%가 가중되었으나, 앞으로는 1회 반복 위반 시 10%, 2회 반복 위반 시 30%,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50%로 가중 비율이 높아진다. 또한 반복 위반횟수 산정 시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 건은 제외하도록 산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또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감경 기준들이 삭제됐다.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20%~75%까지 깎아주던 감경 규정은 지연 일수에 따라 기본금액이 가산되는 규정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됐다. 아울러 최초 위반 시 20%를 깎아주던 규정 역시 신규 지정 직후 위반 감경(50%)과 중첩 적용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삭제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건강창업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유통 명가 햇터그룹이 당신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30년 유통 노하우와 브레인TV 홍보 지원으로 검증된 건강 브랜드,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파트너 모집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30년 건강 비즈니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자사 TV 방송국 광고 지원
브레인TV 채널 노출을 통한 강력한 마케팅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명품 홍삼, 건강식품, 건강용품, 의료기기 등 검증된 라인업

유연한 창업 모델
무점포부터 대형 매장까지 맞춤형 컨설팅

최저 창업 비용 398만원
부담 없고 합리적인 창업비용으로 실질적인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0년 노하우를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1522-7585

창업상담 방문을 하시는 모든 분께
- 무료 창업 컨설팅 제공
- 창업가이드북 증정
- 홍삼선물세트 198,000원 상당 증정

QR 스캔

대한홍삼(주)

BH 대한홍삼[주]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 1호선 11번 출구 / 7호선 9번 출구)

Since 1996 햇터그룹 Haetter Group

충남도, 美서 4억달러 투자 유치… 미래사업 국비 확보 고삐

천안·아산 산단에 생산시설 신설
수출상담회에 도내 기업 20곳 참가
미반영 사업 예산 추가 확보 집중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2일 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순방을 통한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성과와 2027년도 국비 확보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미국 순방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지사는 2일 충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미국 출장 성과와 2027년도 국비 확보 전략 등을 설명했다.

박 지사는 "민선 9기 충남도의 경제 영토 확장 방향은 '글로벌 기업은 충남으로, 충남 기업은 세계로' 나아가는 쌍방향 경제 고속도로를 뚫는 것"이라며 이번 순방을 충남의 투자 매력을 알리고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길을 넓힌 경제 외교로 평가했다.

이번 순방에서 충남도는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으로부터 총 3억 963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해당 기업들은 천안과 아산 산업단지에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글로벌 기업들이 충남에 뿌린 투자라는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3력혁신과 광속행정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욕 수출상담회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20개사가 참가해 이 중 7개 기업이 해외 바이어들과 총 2071만 달러 규모의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도는 이번 협약이 실제 수출 계약과 해외시장 진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 지사는 내년 충남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와 '2027 제1회 섬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위해 충남의 '1호 세일즈맨'으로서 홍보와 행사 준비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21일까지 논산시민가족공원 일원에서, 섬비엔날레는 4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보령 원산도와 고대도 일원에서 열린다.

내년도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13조 2632억원을 지키고, 미반영 사업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중부권 첨단 바이오 밸류업, 해상풍력터빈 부품 시험센터 등 미래 성장동력 사업의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 등 핵심 교통망 사업 예산도 지켜내고, 본예산 63억원과 재해대책비 137억원 등 총 200억원을 확보한 소나무재선충병 산업화 방제 모델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과 축산환경관리원 신축 등 주요 국책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맞춰 여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예결위원들과 연쇄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지사는 "외교로 문을 열고 정부안으로 길을 닦았다면 이제 국회에서 충남의 예산을 최종 확정 짓겠다"며 "국회 예산 심의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첨성대, 中 시안 공원에 설치

경주시는 중국 시안시가 지난달 흥경궁공원 내 국제우호도시 조각공원에 경주의 대표 역사문화유산인 첨성대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조형물은 신라 천년고도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실제 첨성대 높이의 4분의 1 수준인 2.1m 규모로 제작됐다. 첨성대는 신라 선덕여왕 때 축조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 시설로, 신라의 과학기술과 역사문화를 상징한다.

경주시와 시안시는 1994년 11월 18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경제·문화·관광·청소년·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해 왔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수원시

환경교육도시 3회 연속 지정

수원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3회 연속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이다.

수원시는 지난 5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에 참여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수원시를 포함한 기초지자체 7곳과 광역지자체 3곳이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다.

수원시는 2020년 9월 환경부 환경교육도시 시범도시로 지정된 데 이어 2023년 10월 법정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다. 이번 재지정으로 3회 연속 지정 기록을 세웠다. /수원(경기)=김예원 기자 ywon@

김해시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유치

김해시는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차기 유치도시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유치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화포천습지 과학관 안에 센터 사무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현재 전남 순천에 있는 센터의 다음 유치도시를 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해시는 화포천습지의 보전·생태복원사업과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화포천습지 과학관 조성 등을 추진해 왔다. 센터는 2008년 창원에서 개최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2009년 설립된 국제 협력 기구다. 전 세계 4개 람사르지역센터 가운데 하나로, 경남 창원에서 운영되다 2016년 전남 순천으로 옮겼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부산시

ASEAN+3 채권시장 포럼 개최

부산시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주최하는 'ASEAN+3 채권시장 국제포럼'이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BNK부산은행 컨벤션홀 등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국내외 금융 당국과 중앙은행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포럼은 BNK금융그룹과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행사를 주관하고 부산시, 재정경제부, 부산관광공사가 후원한다. 참가자들은 '지속 가능한 블루시티 조성'을 주제로 아시아 금융 시장의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부산=이정민 기자 metrobusan6@

경기교육청, 10대 교육 해법 마련

44일간 6116명 만나 의견 청취
지역별 교육 현안·정책 방향 공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대 교육 해법'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에게 들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10대 교육 해법'을 발표하고 정책 추진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2일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을 통해 수렴한 지역별 교육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지난 9월 17일 화성·오산을 시작으로 10월 30일 의정부까지 44일간 31개 시·군을 방문해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 등 6116명을 만났다.

도교육청은 현장 의견을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디톡스 ▲체험활동 재개 ▲과밀학급 대응 ▲소규모학교 지원 ▲특수교육과 돌봄교육 ▲교사 행정업무 경감 ▲학생 통학 지원 ▲교복 비리 근절 ▲학부모 지원과 협력 등 10개 과제로 정리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장 임기와 밀리터리 멘토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폰 OFF, RAS ON' 정책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한편 독서·예술·스포츠 활동을 확대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제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진도개 혈통·생애 이력 한눈에 본다

진도군,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어떤 혈통을 이어받았고, 어디에서 태어나 누구에게 분양됐을까?' 진도개의 혈통과 생애 이력을 전자 정보(디지털)로 확인하는 길이 열린다.

천연기념물 진도개에게 이른바 '전자(디지털) 신분증'이 생기는 셈이다.

진도군은 '2026년 정보통신기술 활용 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의 하나로 지난 5월부터 추진한 '분산형 정보 저장 기술(블록체인) 기반 전통반려견 혈통인증관리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혈통 정보와 개체별 관리 이력을 연결하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진도개 양육자는 자신이 기르는 진도개의 출생확인서, 진도개증명서, 혈통증명서, 총 3종의 증명서를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하고, 발급된 전자(디지털)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핵심은 분산형 정보 저장 기술(블록체인)과 분산신원인증기술(DID)을 적용한 전자(디지털) 증명서 서비스다. 분산형 정보 저장 기술(블록체인)을 활용해 증명서의 위조와 변조를 막고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혈통 인증의 신뢰도를 높였다.

진도개 양육 농가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스마트폰 앱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소유자와 주소 등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반출입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진료, 예방접종, 전자칩 관련 예약과 심사 신청도 할 수 있다. /진도(전남광주)=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북도, 산림경영특구·투자선도지구 추진

경북 임업인의 날 기념행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경상북도 임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경북도는 2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대강당에서 '제1회 경상북도 임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6차 산업 투자 확대와 산림경영특구·산림투자선도지구 추진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방안을 제시했다.

'숲에서 시작된 오늘, 미래의 숲으로'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는 산림소득 발전에 기여한 임업인과 공무원 등 16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임업인의 날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임업인의 권익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11월 1일이다.

도는 지역별 특화 임산물의 생산·가공·체험·관광을 연계하는 6차 산업 투자를 확대해 안정적인 임업소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림경영특구를 통해 산림경영을 규모화·집단화하고, 산림투자선도지구에는 민간 투자를 연계해 산촌의 일자리와 소득 기반을 확충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본격화

경남도, 내년 구역 지정·고시

경남도가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 협의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상반기 구역 지정·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 9월 17일 사천시의 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뒤 사업 타당성과 개발 구상, 관련 법령·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했다. 이어 10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협의를 요청했다.

대상지는 사천시 용현면 일원 약 710만㎡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발한다. 우주항공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행정·연구 개발지구, 주거·교육지구, 첨단 산업지구를 배치해 기업과 전문 인력의 정착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대상지 약 67%인 143만 평이 농림지역이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협의가 주요 과제다. 구역 지정 이후에는 사업 시행자인 사천시가 2027년 하반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 진행계획 승인과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는다.

경남도는 국가 차원의 재정·행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기업 유치도 병행한다. 11월 9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영호남 시·도민 상경 촉구대회'를 열 계획이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상품 추천부터 방송 진행까지”… AI가 바꾸는 쇼핑 공식

유통업계, 상품탐색·자동화 확산
무신사·11번가, 맞춤형 추천 강화
G마켓·GS샵, AI 상품기획 등 지원
롯데홈쇼핑, AI 방송 주문액 500억



유통업계에도 AX 바람이 불고 있다. 큐레이션부터 사내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AI가 접목되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유통업계에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바람이 불고 있다. 상품 검색과 추천부터 프로모션 기획, 콘텐츠 제작, AI 쇼호스트에 이르기까지 AI 기술을 접목하는 영역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추세다. 단순히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수준을 넘어 상품기획자(MD)의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방송 제작에 AI를 활용하는 등 내부 업무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요 이커머스와 홈쇼핑 업체들이 AI를 활용한 상품 탐색 서비스와 업무 자동화 시스템, AI 쇼호스트 등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소비자 접점에서는 구매 의도와 최신 트렌드를 분석해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는 AI가 데이터 분석과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도입되는 분야는 단연코 큐레이션 분야다. 수많은 상품들 중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정확하게 제시해 쇼핑 경험을 크게 개선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도입한 기업들은 유의미한 성과를 얻었다.

무신사는 AI가 외부 패션·뷰티 트렌드를 분석해 상품을 제안하는 ‘AI 트렌드 큐레이션’의 적용 범위를 일상복과 겨울 아우터등 12개 카테고리로 확대했다. 지난 6월 캡·야구모자 카테고리에 처음 도입한 이 서비스는 ‘얼굴 소멸 모자’, ‘꾸안꾸 볼캡’ 등 트렌드를 반영한 필터로 상품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로 적용한 10개 카테고리의 필터 이용률은 도입 후 열흘간 평균 14%, 최대 21% 증가했다. 연내 전 카테고리로 확대할 계획이다.

11번가도 지난 7월 ‘AI 검색’을 도입해 상품 탐색 과정을 간소화했다. 고객이 상품군을 입력하면 AI가 기능과 용도에 따른 세부 검색 키워드를 제시하고, 선택한 조건에 맞춰 5개 안팎의 상품을 추천한다. ‘집들이에 어울리는 선물’ 등 일상적인 표현으로 검색하는 기능도 지원한다. 도입 첫 달 AI 검색의 구매전환율은 기존 통합검색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기업 내부에서의 AX도 활발하다. AI는 상품 검색을 넘어 상품 선정과 프로모션 기획에도 활용되고 있다.

G마켓은 지난 2일 시작한 ‘빅스마일데이’에 AI 기반 특가상품 선별 시스템을 도입했다. AI가 구매 후기와 판매 실적, 계절별 수요 등을 분석해 특가상품 후보를 발굴하면 MD가 신제품과 단독 기획상품 등을 추가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특가딜 상품 규모를 기존 약 1000개에서 3000개 수준으로 3배 확대했다.

GS샵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공동 개발한 ‘MD 큐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했다. MD가 행사 기간과 기획 의도 등을 입력하면 AI가 판매 실적과 고객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상품 선정부터 프로모션 구성과 등록까지 지원한다.

상품 큐레이션, 매장 자동 매핑, 트렌드 센싱, 카피라이팅 등 4개의 AI 에이전트가 최대 1000개의 후보 상품 추출과 상품 분류·배치, 마케팅 문구 작성 등을 담당한다.

홈쇼핑업계에서는 AI 쇼호스트를 실제 방송에 활용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자체 개발한 가상 인간 쇼호스트 ‘루시’를 통해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루시톡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2월 론칭 이후 누적 주문액은 약 500억원으로, 같은 시간대 다른 방송보다 주문 실적이 50% 높았다.

SK스토아는 2024년 7월부터 AI 성우와 립간(LipGAN) 기술을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음성과 입술 움직임을 구현한 AI 쇼호스트를 방송에 활용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음성을 생성하고 캐릭터의 동작과 표정 등을 제어하는 것이 특징이다.

NS홈쇼핑도 지난 5월 ‘실속고등어’ 판매 방송에 AI 쇼호스트를 처음 도입했다. 약 10분간 상품 구성과 할인 혜택 등을 소개했으며, 향후 제작비 부담을 줄이고 방송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케이크에 뱅쇼까지”… 크리스마스 대목 잡기

카페업계, 연말 특수 선점 경쟁
스타벅스, 홀케이크 4종 선봬
투썸, 뱅쇼 앞세워 겨울 수요 공략
파스쿠찌, 협업 케이크 6종 마련



크리스마스 시즌 음료 4종. /파스쿠찌

연말 대목을 앞두고 카페업계가 크리스마스 시즌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홀케이크와 시즌 한정 음료를 중심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는 한편 브랜드 협업과 사전예약 할인 등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연말 수요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 속에서도 연말 모임과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겨냥해 객단가를 높이고 브랜드 충성도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연말을 앞두고 홀케이크 4종을 새롭게 출시했다. 모찌와 크레이프, 보늬밤, 캔디드 넛츠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맛뿐 아니라 식감까지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매장에서 판매해 호응을 얻은 조각 케이크를 홀케이크로 확장해 기존 제품의 인기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지난 6월 출시한 ‘모찌 쏙 바스크 치즈 케이크’는 누적 판매량 40만개를 넘어섰으며, 이를 홀케이크 형태로 재구성한 ‘모찌 품은 바스크 치즈 케이크’도 선보였다. 홀케이크는 스타벅스 공식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투썸플레이스는 겨울 대표 음료인 뱅쇼를 앞세워 시즌 수요 공략에 나섰다. 2015년 처음 출시한 ‘윈터 뱅쇼’는 누적 판매량 500만잔을 넘어선 브랜드 대표 겨울 메뉴다. 2024년에는 저당 수요를 반영한 ‘뱅쇼 로우 슈거’를 추가했으며, 뱅쇼 라인업은 2년 연속 연간 판매량 100만잔을 기록했다. 올해는 기존 뱅쇼 2종에 ‘솔티드 카라멜 라떼’, ‘자바칩 프라페’를 더해 총 4종의 시즌 음료를 선보였다. 아일릿 원희를 홀리데이 캠페인 모델로 연이어 기용하는 등 제품 출시와 마케팅을 연계해 젊은 소비층과의 접점도 확대한다.

파스쿠찌 역시 크리스마스 시즌 음료와 케이크를 동시에 내놓으며 연말 제품군을 강화했다. 음료는 무알코올 뱅쇼를 비롯해 체리 쇼콜라 라떼, 스노우 돌체 카페라떼, 포레스트 쇼콜라 라떼 등 4종으로 구성했다. 케이크는 스와로브스키의 ‘카페 스와로브스키’와 협업한 ‘크리스탈 스완’을 비롯해 트리와 산타, 루돌프 등 크리스마스 상징을 활용한 6종을 준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J제일제당, 햇반 30주년 맞아 ‘AI 공모전’

미래 햇반 주제 이미지·영상 모집
총상금 3000만원 규모로 진행

CJ제일제당이 햇반 출시 30주년을 기념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소비자 참여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CJ제일제당은 오는 13일까지 ‘갓 지은 AI디어 공모전’을 열고 햇반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이미지·영상 콘텐츠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햇반의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소비자와 함께 브랜드의 미래를 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미래의 햇반’과 ‘햇반이 지을 미래’ 등 두 가지다. 참가자는 새로운 디자인과 형태, 기능, 맛 등을 갖춘 미래형 햇반이나 햇반으로 달라질 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을 AI 기술로 구현해 출품하면 된다.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마감 후 본선 진출작 10개를 선정하며,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인기투표를 진행해 27일 최종 수상작을 발표한다. 총상금은 3000만원 규모로 대상 1명(팀)에게 1000만원, 최우수상 3명(팀)에게 각 300만원 등이 수여된다.

유명 크리에이터 빠더너스도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홍보에 나섰다. 빠더너스의 캐릭터 ‘한국지리 문쌤’이 공모전 참여를 유도하는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해당 영상은 빠더너스 유튜브 채널과 햇반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됐다.

/신원선 기자

삼립, ‘호빵맨’ 협업 베이커리 4종 선봬

캐릭터별 특징 살린 다양한 맛 구성
띠부씰 100종 동봉해 수집 재미 더해

삼립이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호빵맨’과 협업한 베이커리 신제품 4종을 출시했다.

삼립은 호빵맨 캐릭터를 활용한 베이커리 제품을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 신제품은 칼슘을 함유했으며, 제품별로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제품은 ▲식빵맨의 새하얀 크림샌드 ▲카레빵맨의 카레펀치빵 ▲호빵맨의 날아라 딸기단팥빵 ▲롤빵소녀의 애플롤링 허리케인 등 4종이다. 탕종 식빵에 크림을 넣은 제품부터 카레와 딸기 카스타드, 단팥, 애플크림 등을 활용한 제품까지 다양한 맛으로 구성했다. 전국 편의점과 슈퍼에서 판매한다.

제품에는 호빵맨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띠부씰 100종 가운데 1종이 무작위로 동봉된다. 삼립은 앞서 2026년 호빵 제품에도 호빵맨 캐릭터를 적용해 밤단팥 호빵과 카레 호빵을 출시한 바 있다.

삼립 관계자는 “전 세대에게 사랑받는 호빵맨 캐릭터를 활용하고 칼슘을 더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제품을 준비했다”며 “11월 중 호빵맨 신제품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오뚜기, 푸드위크 참가 ‘한강라면’ 체험부스 운영

오뚜기가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신제품 ‘한강라면’을 선보인다. 오뚜기는 전시 기간 한강공원을 콘셉트로 한 체험형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한강라면은 역시, 오뚜기’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관람객에게 한강라면의 맛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부스에서는 한강라면 조리 기계를 활용한 신제품 시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전거 타기 게임과 피크닉 가방 만들기, 한강 야경 포토부스 등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롯데웰푸드, ‘악당 칸쵸 찾기’ 이벤트

칸쵸 속 숨은 악당 10종 찾기

롯데웰푸드가 초코 과자 칸쵸의 캐릭터 세계관을 활용한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웰푸드는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악당 칸쵸 찾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호응을 얻은 ‘이름 찾기’ 이벤트에 스토리텔링을 더한 후속 행사다.

이번 이벤트는 칸쵸 캐릭터 카니와 쵸니가 사랑의 물약을 훔친 악당을 찾아 나선다는 설정으로 기획됐다. 제품에는 기존 캐릭터로 변장한 악당 10종이 무작위로 들어간다. 소비자는 과자에 새겨진 캐릭터의 이름과 생김새를 확인해 악당을 찾아 인증하면 된다. 분홍색으로 제작된 ‘사랑의 물약’ 칸쵸를 찾는 것도 참여 요소다.



이벤트 기간에는 악당 캐릭터를 적용한 전용 패키지를 선보인다. 기존 제품과 차별화하기 위해 보라색을 배경색으로 사용했으며, 패키지 곳곳에 악당 캐릭터를 배치했다. 참여는 제품 패키지의 QR코드나 개인 인스타그램 인증 게시물을 통해 가능하다.

경품은 발견한 악당 캐릭터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악당 10종을 모두 찾으면 추첨을 통해 LG 스탠바이미2 MAX를, 7종을 찾으면 DJI 오즈모 포켓 4를 증정한다. 5종을 찾은 참여자에게는 2027년 악당 칸쵸 달력을 제공한다.

사랑의 물약 칸쵸를 찾은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티파니앤코 목걸이·팔찌 세트를 증정한다. 전체 응모자 중 300명에게는 렌티큘러 카드 세트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민간 우주정거장 시대… 보령, 우주의학 인프라 준비 '착착'

美 우주 기업 2곳에 7000만弗 투자
민간 우주정거장 독점 사업권 확보
우주의학 실험 플랫폼 공동개발

국내 스카이랩스 '카트' 도입 협약
고혈압 신약 '카나브'로 뒷받침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보령 본사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서 임동주 보령 전략사업본부장(왼쪽)과 이병환 스카이랩스 대표가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령은 국내 제약사 중 유일하게 '우주의학'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다. 특히 선제적 투자는 물론, 실제 연구 수요를 수주하는 '글로벌 우주 생명과학 인프라 공급자'로 체질 개선까지 이뤄내고 있다. 오는 2030년 민간 우주정거장 시대를 앞두고 K제약의 우주 영토 선점과 수익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3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보령은 우주의학 전진기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합작법인 설립, 글로벌 파트너십 조성, K제약·바이오 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령은 지난 2022년 세계 최초 민간 우주정거장(ISS) 선도기업인 미국 액시엄 스페이스에 6000만 달러(약 800억원)를 투입했다. 국내 제약사가 우주 산업 생태계에 진입한 최초, 최대 규모다. 이어 2024년 1월 액시엄 스페이스와 합작법인 '브랙스 스페이스'를 설립했다. 보령 지분은 51% 수준이며 저궤도 민간 우주정거장의 국내 독점 사업권을 획득했다.

또 민간 최초 달 착륙에 성공한 미국 우주 전문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에 1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며 달 착륙선과 탐사 차량 기반의 우주의학 실험 플랫폼 공동개발 업무협약까지 이끌어냈다.

이처럼 보령의 첨단 영역 연구개발 파트너십은 청사진을 넘어 실제 국내외 기관들이 찾아와 기술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로 성과를 내고 있다. 보령은 지난달 독일우주청(DLR)을 '1호 잠재 고객'으로 확보하며 맞춤형 설계 역량을 입증했다.

국내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스카이랩스와 손을 잡았다. 우주인 생체신호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 및 우주의학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카이랩스의 반지형 혈압계 '카트'를 보령 우주의학 연구개발 인프라에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보령이 국산 고혈압 신약 '카나브(성분명: 피마사르탄)'를 개발하며 심혈관질환 분야에서 입증한 본업인 제약 경쟁력까지 더해진다. 개발 경험과 임상 노하우를, 국내 기업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K우주의학 발전에 적극 이식한다는 방침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분석에 따르면 미세 중력 환경에서 체액이 상체로 이동할 때 심혈관계는 급격한 영향을 받는다. 우주비행사의 경우, 한 달에 최대 1.5%의 골밀도 감소, 최대 30%에 달하는 근력 저하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생체신호를 실시간 측정하고 관리하는 기술은 우주인 생명 유지뿐 아니라 지상에서 발생하는 난치성 심혈관질환, 만성질환 등에도 쓰일 수 있다.

보령의 전방위적 행보와 함께 우주의학 시장의 성장성은 글로벌 및 국가 R&D 정책에서도 주목받는다.

올해 3월 영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우주 의약품 제조 규제 경로를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 보건의료 혁신 프로젝트인 '한국형 ARPA-H'를 통해 우주 환경을 응용한 의약학 난제 극복 과제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보령 임동주 전략사업본부장은 "국내 헬스케어 기업 가운데서도 우주를 바라보는 곳이 나타났고 스카이랩스와 함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국내 시장이 잘 성장하길 기대하고 보령이 확보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발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공지능 신약개발 관련 스타트업 관계자 역시 "과거 우주는 인류가 질병을 극복하는 새로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미지의 세계였지만 이제는 미국 등 선발 주자와 기술 격차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보령을 주요 플레이어로 꼽고 있는 만큼 보령이 글로벌 추격 속도를 단축하는 동시에,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을 이끌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이 마련되는 계기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제형 최적화 도구로 완벽한 베이스 메이크업"

루나X피카소 콜라보 에디션 3종
제품 본연 기능·장점 최대로 경험

애경산업의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루나'가 35년 업력의 메이크업 도구 전문 브랜드 '피카소'와 손잡고 제품 제형에 최적화된 전용 도구를 결합한 기능성 제품을 선보인다. 화장품 내용물과 도구 사이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베이스 메이크업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루나는 피카소와 협업해 베이스 메이크업의 밀착력과 표현력을 높이는 '루나X피카소 콜라보 에디션 3종'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루나가 쌓아온 베이스 메이크업 제형 노하우에 피카소의 도구 개발 전문성을 더해, 제품 본연의 기능과 제형적 장점을 최대로 경험할 수 있다. 제품별 제형 특성과 사용 목적에 따라 피카소가 전용 도구를 맞춤 개발했다.


'루나X피카소'. /애경산업

'롱래스팅 컨실 쿠션'에는 고밀착을 위한 코팅 퍼프를, '컨실 블렌더 팔레트'에는 굴곡진 얼굴 부위에 활용 가능한 미니 삼각 퍼프를 탑재했다. '멜티드 치크밤'에는 제형을 뭉침 없이 퍼뜨릴 수 있는 클라우드 마이크로 치크 퍼프를 적용해 자연스러운 블렌딩을 돕는다.

루나 브랜드 관계자 "청담동 메이크업 아티스트 기반의 피카소 기술력이 기존 베이스 메이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일반 소비자도 손쉽게 피부 표현을 구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LG화학, 희귀비만 치료제 개발·상업화

美 리듬 파마슈티컬스와 '맞손'
비바멜라곤 라이선스 계약 개정

LG화학은 3일 미국 희귀질환 전문 바이오 기업 '리듬 파마슈티컬스(Rhythm Pharmaceuticals, 이하 리듬)'와 경구용 MC4R(Melanocortin-4Receptor) 작용제 '비바멜라곤(Bivamelagon)'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 개정(Amend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비바멜라곤'은 LG화학이 자체 연구개발하여 2024년 1월 임상 1상 단계에서 리듬에 글로벌 라이선스-아웃한 신약물질로, 시상하부 비만 등의 희귀비만증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혁신신약이다. 리듬은 시상하부 비만(HO) 환자 임상 2상을 진행해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했으며, 글로벌 임상 3상 연내 진입을 준비 중이다.

양사가 최초 체결한 계약은 선급금 1억 달러를 포함, 총 규모 3억500만 달러였으며, 별도의 판매 로열티는 리듬 MC4R 전체 포트폴리오(RM-718) 매출 대상으로 '비바멜라곤'의 허가 적응증 수에 따라 상향되는 구조였다.

양사는 이번 계약 개정을 통해 총 규모를 8억5500만 달러(약 1조1500억원)로 확대했고, 판매 로열티 구조를 단순화했다. LG화학은 올해부터 4년간(2026년~2029년) 총 3억5000만 달러(약 4700억원) 규모의 추가 선급금을 수령할 예정이며, 매년 양사 합의하에 선급금을 로열티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개발·허가 및 판매 마일스톤 달성 기준을 완화하여 수익 확보 가능성을 높였고, 마일스톤 규모도 기존 계약에서 2억 달러 추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아모레퍼시픽
인삼으로 피부장수 실현

아모레퍼시픽이 독자 구축한 인삼 연구에 최신 세포생물학 성과를 접목해 피부 노화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차세대 피부과학을 강화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일 서울 아모레퍼시픽 세계 본사에서 '제2회 설화수 롱제비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삼 과학을 통한 피부 장수 연구'를 주제로 열려 60년 인삼 연구의 다음 단계로 '세포 정체성 회복'을 제시했다. 아모레퍼시픽만의 원료들이 갖춘 과학적 기전을 규명해 임상 근거를 축적하는 연구 성과도 대거 공개됐다.

아모레퍼시픽과 존스홉킨스 의대의 공동연구 발표에서는 핵심 성분 '림파낙스'와 피부 면역의 상관관계가 소개됐다. 림파낙스는 인간 피부 조직에서 면역 균형을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레드플라보노이드' 역시 피부 노화 징후를 개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청하 기자

GC녹십자, 1700억 국민성장펀드로 美 공략

알리글로 피하주사 개발 박차

GC녹십자가 미국 시장에서 안착한 정맥주사형(IVIG) 면역글로불린 '알리글로'에 이어, 환자 자가 투여가 가능한 차세대 피하주사형(SCIG) 제형 개발을 본격화하며 20조원 규모의 미국 면역글로불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GC녹십자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 금융 프로그램인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총 1700억원 규모의 미국향 '20% SCIG' 개발 자금을 조달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자금을 오는 202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임상3상시험계획서(IND)를 제출하고 전용 생산을 구축하는 데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의 핵심은 미국 시장 내 제형 다변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다. 최근 글로벌 면역글로불린 시장은 병원 방문이 필요한 정맥주사보다 자가 투여로 환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피하주사 제형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상용화된 20% 고농도 SCIG는 단 3종에 불과해, GC녹십자는 임상 데이터와 생산 체계를 조기에 빠르게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미충족 의료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GC녹십자는 2023년 미국 FDA에서 알리글로 품목허가를 받았고 2025년에는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알리글로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아울러 최근 미국 바이오텍 '큐레보 백신' 매각, 파브리병 치료제 후보물질 'LA-GLA' 기술수출 등으로 대규모 현금 창출을 이뤄내 알리글로 후속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무적 위험도 해소하고 있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GC녹십자 해외 사업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알리글로 미국 진출에 이어 20% SCIG까지 성공시켜 면역글로불린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K제약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프라바펜캡슐'로 잔여 심혈관 위험 잡는다

〈복합형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동화약품, 발매기념 학술행사

동화약품이 스타틴 단일제 처방만으로는 조절하기 어려웠던 '잔여 심혈관 위험'을 관리하고 환자 복약 편의성을 개선한 복합형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프라바펜캡슐'의 임상적 활용 전략을 공유했다.

동화약품은 지난달 31일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국내 주요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프라바펜캡슐' 발매 기념 학술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신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진료지침과 한국인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LDL-콜레스테롤혈증과 고중성지방혈증을 동반하는 환자별 맞춤 치료를 제시했다.

'프라바펜캡슐'은 프라바스타틴나트륨 40mg과 페노피브릭산 110mg을 결합한 복합제다.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 LDL-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동시에 중성지방 감소 및 HDL-콜레스테롤 개선 효과를 갖췄다.



지난 10월 31일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프라바펜캡슐' 학술행사 전경. /동화약품

특히 관상동맥심질환(CHD) 고위험군 중 스타틴 치료 후에도, 중성지방 수치는 높고 HDL-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은 잔여 위험이 남아있는 환자에게 투약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조금 더. 해보고 싶어
조금 더. 잘하고 싶어
조금 더. 좋아지고 싶어
조금 더. 도전하고 싶어

이 작은 마음에
전부를 걸었던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

아직도
이 작은 마음에
전부를 걸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오늘도 조금 더”

We Do Technology | SK hynix

초심



동아에스티, 송도 도심 숲 가꾸기 캠페인 실시

동아에스티가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 송도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도심 녹지 보전 활동에 나섰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일 인천 누리공원에서 송도시설공단, 연수구청과 함께 친환경 도시 숲 가꾸기 '모동숲'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동아에스티 송도캠퍼스 류창걸 공장장(앞줄 왼쪽에서 6번째),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강병진 사업본부장(앞줄 왼쪽에서 7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통계조사 기여 공로 인정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계 경제총조사 참여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2026년도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 포상 전수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병수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연구소장(왼쪽 2번째)이 '2026년도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 포상 전수식'에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왼쪽 5번째)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고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포용금융 실천 동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김인 회장이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일 밝혔다. 사람 살리는 금융 캠페인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포용금융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여경협, 우수 여성기업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마케팅 전문기업과 손잡고 우수 여성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에 나선다. 여경협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본회에서 퍼포먼스바이티비더블유에이(퍼포먼스바이TBW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박창숙 여경협회장(오른쪽)이 김형태 퍼포먼스바이TBWA 대표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경협



소진공, 대전경찰청과 소상공인 안전 강화 성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경찰청과 협력해 추진한 '스마트 안심 태그 보급 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사업 담당자들이 대전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3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역상권실 윤은진 과장, 정수정 대리가 대전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각각 수상했다. (왼쪽부터)소진공 지역상권실 정수정 대리, 윤은진 과장. /소진공

퇴직연금 558조 시대… 금감원, 장기투자 문화 확산

퇴직연금 오래오래 캠페인 출범식
연말 납입·상반기 운용 점검 정례화

퇴직연금 적립금이 558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이 장기·분산투자 문화 확산에 나섰다.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특정 자산에 쏠리거나 단기 매매에 치우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연금계좌를 정기적으로 살펴보고 자신의 은퇴 계획에 맞춰 관리하도록 교육과 실천을 연계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및 퇴직연금사업자와 공동으로 '퇴직연금 오래오래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찬진 금감원장과 가입자 대표, 노동계, 학계, 금융협회 및 퇴직연금사업자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퇴직연금 오래오래 캠페인. /금융감독원

올해 6월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5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 382조4000억원에서 2024년 말 431조7000억원, 지난해 말 501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성장세를 이어갔다.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수요도 급증했다. 올해 1~7월 DC형 전환 가입자는 34만156명으로 전년 동기 15만5947명보다 118.1% 늘었다.

반면 운용 방식은 양극화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말 DC계좌 기준으로 적립금 전액을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넣은 가입자 비중은 46.9%였다. 적립금의 절반 이상을 위험자산에 투자한 가입자도 33.9%에 달했다. 올해 2분기 말 퇴직연금 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규모는 99조8000억원으로, 2023년 말 9조원의 약 11배로 늘었다.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50.4%였다.

운용에 관심이 있어도 방법을 모르는 가입자는 적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지난해 직장인 퇴직연금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7.1%는 적립금 운용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번 캠페인은 '배우고(Learn)·열어보고(Open)·가꾸고(Nurture)·이어가는(Grow)'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딴 'L.O.N.G.'를 바탕으로 단기 수익보다 장기·분산투자 원칙에 따른 운용을 유도한다.

매년 11~12월에는 '연금 채움 주간'을 운영해 가입자가 적립금과 연간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금융회사 앱과 문자, 영업점 등을 통해 추가 납입 가능 금액을 알리고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도 지원한다.

매년 5~6월에는 '연금 가꿈 주간'을 마련한다. 수익률과 운용 현황 등을 담은 퇴직연금 투자백서를 발간하고, 디폴트옵션과 보유 상품을 점검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지원을 통한 '찾아가는 내 연금 교실'과 사업장 대상 운용 교육도 진행한다.

가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가이드북'도 금융협회·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발간했다. 총 254쪽 분량으로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을 아우르며, 노후 준비상태 점검부터 제도 선택, 적립금 운용, 연금 수령까지 생애주기별 정보를 담았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LG전자, 문화유산 디지털 아트 공개

K-헤리티지 컬렉션 21점 제공
모란도·백자 달항아리 등 구현

LG전자가 스마트TV를 통해 조선 왕실의 문화유산을 디지털 아트로 선보이며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LG전자는 스마트TV 아트 콘텐츠 서비스 'LG 갤러리 플러스(LG Gallery+)'에서 조선시대 문화유산을 디지털 아트로 재해석한 'K-헤리티지 컬렉션: 시즌1 조선왕실 시리즈' 21점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LG 갤러리 플러스는 LG전자의 독자 스마트TV 플랫폼 웹OS(webOS)를 기반으로 한 아트 콘텐츠 서비스다. TV를 디지털 캔버스처럼 활용해 이용자가 취향에 맞는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실내 인테리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컬렉션에는 경복궁 근정전의 천장과 단청, 기둥 등 내부 공간을 표현한 '정전 안으로(Into the Throne Hall)'와 경회루의 야경을 담은 '달과 물 사이(Between Moon and Water)' 등 미디어아트 영상이 포함됐다.

일월오봉도와 모란도, 군안도 등 조선왕실 회화도 디지털 화면으로 재구성했다. 백자 달항아리와 분청사기, 청화백자, 국새 등 다양한 문화유산도 디지털 아트로 구현해 집에서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컬렉션은 디지털트윈 기업 위프코(WIPCO)가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제작했으며, 헤리티지랩(Heritage LAB)이 콘텐츠 기획과 창작을 담당했다. 아트테크 기업 엘팩토리(ELFACTORY)는 플랫폼 연계와 유통을 맡았다. LG전자는 이들 기업과 협업해 한국 문화유산을 활용한 디지털 아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영국 내셔널갤러리 런던과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주요 미술관과도 협력하고 있다. 아트 플랫폼 사치아트(Saatchi Art)와의 협업을 통해 현대미술 작품을 제공하는 한편, 게임 일러스트와 자연경관 사진 등 콘텐츠 범위도 넓히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 갤러리 플러스의 디지털 아트로 재탄생한 '백자 청화 매죽문 항아리'. /LG전자

교촌, 특수학급 학생들과 나눔 체험

사회성 향상 위한 봉사활동

교촌에프앤비가 특수학급·통합학급 학생들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체험형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임직원 봉사단 '바르고 봉사단'이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 서울구산초등학교 학생 30명과 함께 사회성 향상 체험학습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특수학급 학생 9명과 통합학급 학생 21명이 참여했다. 교촌 임직원과 '청년의 꿈' 장학생 등 봉사단원들은 학생들과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고 인근 근린공원에서 숲 산책을 했다. 이후 교촌치킨 역촌1호점에서 치킨 소스 바르기 체험도 진행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

SLL, 두바이와 K-콘텐츠 중동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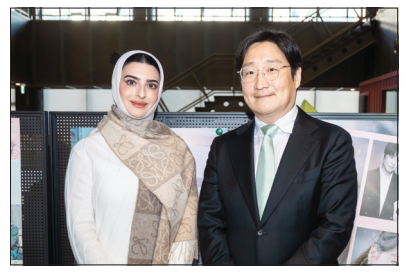
콘텐츠 공동제작 등 협력 논의

SLL이 두바이 미디어위원회와 만나 한국과 두바이 간 콘텐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SLL은 지난달 28일 두바이 미디어위원회(DMC) 대표단을 만나 글로벌 콘텐츠 공동제작과 지식재산권(IP) 활용 등 양측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네할 바드리 DMC 사무총장 등 두바이 미디어 산업 관계자와 박준서 SLL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SLL은 주요 글로벌 콘텐츠 성공 사례와 해외 공동제작 경험을 공유하고 포맷 판매 및 리메이크 사례를 소개했다. 드라마 '닥터 차정숙'의 튀르키예 리메이크와 '미스티'의 이집트 리메이크 등이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주요 사례로 언급됐다.

양측은 한국과 두바이 제작사 간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제작, SLL 콘텐츠 IP의 아랍에미리트(UAE) 현지 리메이크, 촬영 장소 지원 등을 논의했다. DMC는 SLL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신원선 기자


네할 바드리 DMC 사무총장과 박준서 SLL 대표이사(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했다. /SLL

광동제약, ESG 경영 공로 산업장관 표창

ESG 경영 체계 강화

광동제약은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생산성·지속가능경영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제21회 지속가능경영 유공 종합 ESG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ESG 경영 실천과 국정과제 이행 성과 창출에 기여한 기업·기관을 선정한다.

광동제약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 영역에 걸쳐 지속가능한 경영 가치를 창출하고 체계적인 관리 인프라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세경 기자 seilee@

부음

▲공윤길씨 별세, 이용호(청와대 춘추관 행정관)씨 빙부상 = 3일 오전 7시,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2층 8호실, 발인 5일 오전 6시.

▲문철상 씨(전 신협중앙회장) 별세, 김경희 씨 남편상, 문순환·윤선 씨 부친상, 윤연지 씨 시부상 = 2일 군산 은파장례문화원 2층 특실, 발인 4일 오전 9시 30분, 장지 군산승화원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2026년 11월 18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주 제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일 시 2026년 11월 18일(수) 14:00~17: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연사 소개



이경전
- 경희대학교 교수
- 한국AI서비스학회장



김지섭
-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



한영섭
- LG유플러스 AI R&D랩장



박기철
-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



현창호
-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장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개막식	14:00~14:20	〈축사〉 **이우용** 한국SW · ICT총연합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4:50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 한국AI서비스학회장 : 업종별 AI/로봇 활용 방안과 전망
강연	14:50~15:20	**김지섭**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 : AI 전환의 허와 실
	15:20~15:50	**한영섭** LG유플러스 AI R&D랩장 : AI가 이끄는 기술/산업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기회(AX)
	15:50~16:20	**박기철**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 : 산업현장 AI적용사례와 변화 트랜드
	16:20~16:50	**현창호**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팀장 :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에서의 AX의 역할과 의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metro · metro경제

관계빈곤과 손절사회



전 용 호 교수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관계는 인간다운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 이웃과 일상을 나누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의지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마음을 나누면서 교류하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은 부족하다.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아도 관계에서는 가난할 수 있다. 이를 '관계빈곤'이라 부른다.

최근 '손절사회'라는 표현이 주목받는다. 손절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거래를 중단한다는 경제적 용어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도 손익을 따지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과 쉽게 관계를 끊는 손절 현상을 보여준다. 폭력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절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갈등을 대화로 풀기보다 상대방의 '효용'을 기준으로 관계를 평가하는 태도가 확산되는 데 있다.

이는 개인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과와 효율, 경쟁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의 가치가 인간관계에도 스며든 결과다. 만남조차 자신의 성장이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로 평가하면, 관계는 상호 존중의 기반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 에바 일루즈의 '감정 자본주의'는 경제적 합리성이 친밀한 관계에까지 작용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관계의 격차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맞물릴 가능성도 우려된다. 인간관계는 정서적 지지뿐 아니라 정보와 일자리, 사회적 기회를 얻는 통로다. 피에르 부르디외가 설명한 '사회자본'은 지속적인 관계망에서 형성되는 자원이다. 관계망이 풍부한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얻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관계망이 좁은 사람은 기회에서도 배제될 위험이 있다. 관계빈곤은 개인의 외로움을 넘어 각종 불평등이 재생산된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회조사에서 국민의 38.2%는 평소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도움받을 사람도 없고 평소 교류하는 사람도 없는 비율은 5.8%,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비율은 3.3%였다. 65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4.5%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사람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제 관계빈곤은 특정 연령층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은 고용·주거 불안, 중장년은 실직과 퇴직, 노년은 사별과 건강 악화로 관계망이 약화될 수 있다. 이를 개인의 성격이나 사교성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생애주기와 환경에 따른 관계 단절의 원인을 살피고 사회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관계적 복지(Relational Welfare)'는 복지를 소득과 서비스 제공에 한정하지 않고 관계와 상호의존, 공동체 참여를 중요한 가치로 보는 접근이다. 영국의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은 단적인 예로 외로움과 고립을 겪는 사람을 지역 동아리, 문화활동, 자원봉사와 주민모임 등에 연결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고 지속적인 참여를 돕는다.

관계는 서비스처럼 제공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관계가 형성될 조건을 조성하는 것은 이제 사회의 책무다. 복지관과 주민센터, 도서관 등은 주민이 만나 일상을 나누는 생활공간이 되어야 한다. 관계망이 취약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신뢰를 쌓고 지속적인 만남을 지원해야 한다. 주민을 수동적인 타자가 아니라 서로 돕는 공동체의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

관계빈곤에 대응하는 일은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람을 이익과 효용으로 평가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끊어내는 손절 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일이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곁에 두는 사회에서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우리 역시 언젠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의 품격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난다. 손절이 일상이 된 사회를 넘어 누구도 관계에서 버려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을 손익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다움과 연대의 출발점이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넥스트케어(돌봄혁신허브) 대표

정답 주는 AI, 학생의 '헤매는 시간'을 뺏는다



기자 수첩
김 수 정
〈유통&라이프부〉

문제를 풀다 막히면 인공지능(AI)에 묻는다. 단 몇 초 만에 풀이와 정답이 나온다. 요즘 학생들에게 익숙한 공부법이다. 교육 현장의 AI 도입을 취재하다 보면 효율과 맞춤형 학습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때마다 걸리는 질문이 있다. 학생이 헤매는 시간은 어디로 갔을까.

AI가 공부의 지름길인지는 명확한 답이 없다. 다만 불편한 연구 결과는 나와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연구진은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GPT-4 기반의 학습용 AI를 제한 없이 쓴 학생들은 AI를 쓰지 않은 학생보다 48%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AI 없이 치른 시험에서는 17% 낮은 점수를 받았다.

눈에 띄는 대목은 학생들의 인식이다. AI를 제한 없이 쓴 학생들은 시험 결과가 나빴는데도 다른 학생들만큼 '배웠다'고 느꼈다. 정답을 쉽게 얻을수록 이해했다고 착각하기도 쉬웠다.

학습은 본래 불편한 과정이다. 풀이가 막히고, 엉뚱한 길로 들어서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쌓여야 개념이 남는다. 정답을 즉시 건네는 AI는 이 시간을 건너뛰게 한다. 성적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과정이 사라지면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내는 힘도 약해질 수 있다.

같은 연구에서 해법의 실마리도 보인다. 정답 대신 단계별 학습 과정을 안내하도록 AI를 설계했을 때, 학생들의 성적은 127% 올랐다. AI 없이 본 시험에서는 AI를 쓰지 않은 학생과 비슷한 성적을 냈다.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한계는 남지만, AI가 문제인지 아닌지보다 어떻게 설계하고 쓰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 교육 현장은 어떤가. 교육청마다 AI 활용 교육과 평가 지원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고 있지만, 학생이 무엇을 AI에 맡기고 무엇을 직접 할지, 기준은 뚜렷하지 않다. 이미 학생들은 AI 친화적인 환경에 적응했다. '쓰게 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학습 단계별 활용 지침이 필요하다.

AI는 앞으로 더 빠르게 정답을 내놓을 것이다. 교육이 지켜야 할 것은 정답이 아닌 정답에 이르는 과정이다. 학생에게 헤맬 시간을 돌려주는 일, AI 시대 교육이 풀어야 할 숙제다.

/kcrystal@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4일 (음 9월 2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조급해 하지말고 우직하게 기다려 보세요. **60년생** 전업이나 개업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72년생** 여행은 다음달로 미루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84년생**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소 **49년생** 먼저 정한 바를 고집하세요. **61년생** 오랫동안 바래왔던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73년생** 근신자중의 날입니다. **85년생** 욕구를 앞세우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호랑이 **50년생** 조금만 더 기다림이 좋을 듯 합니다. **62년생** 평생의 숙원이 목전에 있습니다. **74년생**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86년생** 심신이 고달픈 일이 생깁니다.

토끼 **51년생** 아랫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63년생** 가까운 친한 인척을 돌아 보세요. **75년생** 금전운은 길하나 곧 나가게 됩니다. **87년생** 지난친 의탁이나 의존은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용 **52년생** 과욕은 금물입니다. **64년생** 모든 일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76년생** 누명이나 사기를 조심하세요. **88년생** 당신을 신뢰하는 이가 더 많으니 좌절하지 마세요.

뱀 **53년생** 일찍 귀가하세요. 자칫 불편한 일에 엮일 수 있습니다. **65년생** 긴 안목을 가지도록 하세요. **77년생** 현실적인 소망을 먼저 이루도록 하세요. **89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말 **54년생** 작은 상처라도 정성껏 치료해야 합니다. **66년생** 현실을 직시하세요. **78년생** 상대방은 마음에 없는데 본인 몸만 달았습니다. **90년생** 다 끝낸 일이 다시 불거집니다.

양 **55년생** 인간관계를 잘 맺으세요. **67년생** 친구들과의 약속은 다음으로 미루어 보도록 하세요. **79년생** 작은 도움이 큰 결실을 보게 됩니다. **91년생** 마음이 잘 맞는 주위 사람과 상의하세요.

원숭이 **56년생** 남쪽에 귀인이 있습니다. **68년생** 좋은 운이 돌아오니 순리대로 처신하세요. **80년생** 그동안 심고 가꾼 곡식이 알찬 열매를 보게 됩니다. **92년생** 주위의 유혹이 많은 날입니다.

닭 **57년생**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69년생** 여유 있게 대하세요. **81년생** 지나친 과민반응이 상대방을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93년생** 젊은 날의 쾌락은 잠시뿐임을 잊지 마세요.

개 **58년생** 모든일이 잘 풀립니다. **70년생** 소원이 성취되기 힘듭니다. **82년생**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해야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94년생**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돼지 **59년생** 모든 일을 쉽게 이루니 기쁨이 가득합니다. **71년생** 다른 이를 신경쓰지 마시고 소신껏 행동하세요. **83년생** 여행을 떠나세요.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95년생** 시험운이 좋습니다.



김상회의 四季

소멸시효

공소시효, 범죄를 저지른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는 제도이다. 실생활에 훨씬 밀접한 제도는 잘 모르는데 그것은 소멸시효다. 자신의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주었어도 법이 정한 기한 내에 돌려받지 않으면 법의 힘으로도 되찾기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사실 소멸시효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적용되고 있다.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내야 하는 음식값도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병원 치료비, 일하고 받는 임금 같은 일상의 거의 모든 경제활동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소멸시효는 어떤 권리이든 똑같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일까. 공소시효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듯 소멸시효도 어떤 권리냐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식당에서 외상으로 음식을 먹었다면 식당 사장님은 1년 이내에 음식값을 청구해야 한다. 음식값이나 숙박료 입장료 같은 일상적인 소비 채권은 대부분 1년이라는 시효를 갖는다. 병원비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 상업적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5년이다. 개인과 개인이 주고받은 금전에 관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다. 물론 소멸시효가 정해진 기간대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이나 거래의 변수가 있을 때는 소멸시효의 적용 기간이 달라진다.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언젠가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기다리다가 소멸시효가 지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법이지만, 법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 자기 권리를 지키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함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3	2		5		
				5	4			
3								9
	4		5		1			3
9	3						5	1
1			6		8		4	
7								2
			9	1				
		9		8	2	6		

	6	5	8	2		3		
			5			7		
8								9
				7	4		6	
	9		6		1		2	
	7		3	5				
6								4
		9			8			
		4		1	2	8	9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3	6	2	8	7	9	1	5
5	8	7	1	3	9	4	6	2
2	9	1	5	6	4	3	8	7
7	4	9	8	3	6	5	2	1
1	5	8	7	4	2	6	3	9
9	6	3	4	5	1	2	7	8
3	2	4	6	7	8	1	9	6
8	1	5	9	2	3	7	4	6
6	7	2	3	1	5	8	6	9

6	9	8	2	1	7	4	3	5
5	3	2	8	6	4	9	1	7
4	7	1	5	9	3	8	2	6
8	1	4	9	3	5	6	7	2
9	6	9	4	7	2	3	6	1
9	5	6	3	1	4	7	8	2
2	3	5	7	8	6	1	9	4
1	4	7	6	2	9	5	3	8
3	8	5	1	4	2	9	6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27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3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취업이 먼저”… SKY 최상위, 인문 ‘교육’ 자연 ‘의대’ 선택

SKY 최근 5년 합격선 1위 학과
인문, 교육 관련학과 가장 많아
인기학과인 경영은 5년간 ‘0건’
자연, 의약학 계열 쏠림 뚜렷해
일반학과선 수학·컴퓨터 강세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SKY) 추천 전형의 최근 5년 합격선 1위 학과를 조사한 결과, 인문계열은 교육 관련 학과가, 의약학을 제외한 자연계열은 수학·컴퓨터 관련 학과가 강세를 보였다. 반면 인문계 대표적인 인기 학과인 경영학과는 분석 기간 단 한 차례도 최고 합격선을 기록하지 못했다.

3일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2022~2026학년도 서울대 지역균형전형(학생부종합), 연세대 추천형(교과), 고려대 학교추천전형(교과)의 최종등록자 학생부 성적 70% 컷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인문계열에서는 3개 대학·5개 학년도별 최상위 학과 15건 중 교육 관련 학과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는 2022학년도 영어교육과(1.11등급), 2023학년도 국어교육과(1.04등급), 2024학년도 영어교육과(1.02등급)가 3년 연속 최고 합격선을 기록했다. 연세대는 2022학년도 교육학부가, 고려대는 2023학년도 역사교육과와 2024학년도 교육학과가 각각 상위에 올랐다.

그 외 학과별로는 서울대 경제학부가 2025학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인문계열 최상위에 올랐으며, 2026학년도에는 1.00등급을 기록했다.

반면 인문계 전통적 선호 학과인 경영학과는 단 한 번도 최고 합격선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수능 도입 이후 수학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와 이과생의 인문계열 교차지원, 취업 가능성을 중시하는 실리적 학과 선택 등이 맞물린 결과다.

자연계열은 의약학 계열의 독주가 뚜렷했다. 최고 합격선 15건 중 의대가 13건, 수의대가 1건으로 나타났다.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일반 학과가 자연계열 전체 1위에 오른 사례는 올해 서울대 수학교육과(1.05등급)가 유일했다.

일반 학과 분석에서는 수학·컴퓨터 계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수학 계열에서는 서울대 수학교육과(2023·2026학년도)와 고려대 수학교육과(2022·2023학년도)가 상위권을 형성했다. 컴퓨터 계열은 연세대 컴퓨터과학과가 3년 연속(2022~2024학년도) 1위를 차지했고, 고려대 컴퓨터학과가 2025학년도 최고점을 기록했다. 올해는 연세대 천문우주학과와 고려대 바이오시스템의과학과가 각각 비의약학 상위 학과로 이름을 올렸다.

임 대표이사는 자연계 수학·컴퓨터 관련 학과의 강세가 진로 선택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수학 전공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고, 컴퓨터 관련 전공 역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넓어 수험생들이 진로까지 고려해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오는 2028학년도 대입 모집 계획에 따라 SKY 대학의 추천 전형 선발 규모는 확대된다. 서울대는 지역균형전형 모집 인원을 2027학년도 514명에서 2028학년도 728명으로 대폭 증원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인 연세대 추천형은 512명에서 564명으로, 고려대 학교추천전형은 650명에서 672명으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SKY 최근 5년간 합격점수 최고학과 괄호는 등급. 서울대(지역균형)·연세대(추천)·고려대(학교추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인문	자연	자연비메디컬	인문	자연	자연비메디컬	인문	자연	자연비메디컬
2026학년도	경제학부 (1.00)	수학교육과 (1.05)	수학교육과 (1.05)	정치외교학과 (1.20)	의예과 (1.00)	천문우주학과 (1.11)	정치외교학과 (1.23)	의과대학 (1.02)	바이오시스템의과학(1.14)
2025학년도	경제학부 (1.11)	의예과 (1.06)	전기정보공학부 (1.10)	언론홍보영상학부 (1.16)	의예과 (1.01)	화공생명공학부 (1.18)	미디어학부 (1.31)	의과대학 (1.07)	컴퓨터학과 (1.26)
2024학년도	영어교육과 (1.02)	수의예과 (1.06)	항공우주공학과 (1.07)	사회학과 (1.30)	의예과 (1.03)	컴퓨터과학과 (1.31)	교육학과 (1.31)	의과대학 (1.08)	바이오시스템의과학(1.30)
2023학년도	국어교육과 (1.04)	의예과 (1.09)	수학교육과 (1.12)	사회복지학과 (1.28)	의예과 (1.04)	컴퓨터과학과 (1.22)	역사교육과 (1.42)	의과대학 (1.18)	수학교육과 (1.30)
2022학년도	영어교육과 (1.11)	의예과 (1.08)	화학생물공학부 (1.17)	교육학부 (1.21)	의예과 (1.03)	컴퓨터과학과 (1.35)	자유전공학부 (1.54)	의과대학 (1.20)	수학교육과 (1.38)

자료/종로학원

수시 지원자 65%, 유료 입시 상담 받았다

상위권일수록 유료서비스 비중 높아
학생부 상업적 활용 제한 후 불편 늘어
공공상담 ‘예약전쟁’에 실효성 의문

수시모집 지원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유료 입시 서비스나 상담에 비용을 쓴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학생부 상업적 활용 제한 이후 입시 준비에 불편을 느꼈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민간 서비스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대입 공공 상담이 수험생 수요를 얼마나 충족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진학사가 공개한 ‘2027학년도 수시 지원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11~18일 수시 지원자 37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3%는 ‘유료 입시 서비스나 상담에 비용을 지출했다’고 답했다. 30만원 이상을 쓴 비율은 25.5%였고, 100만원 이상 지출한 응답자도 3.3%였다. 비용을 전혀 쓰지 않았다는 응답은 34.7%였다. 상위권일수록 지출 규모는 컸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7일 고3 수험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수능 실시요강 등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학생부 상업적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도 확인됐다. 해당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2883명 가운데 57.4%(1655명)는 ‘제도 시행으로 입시 준비가 불편해졌다’고 응답했다. 불편 이유로는 ‘입시 서비스 이용 제한’이 51.3%로 가장 많았고, ‘스스로 합격 가능성과 지원 전략을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24.2%로 뒤를 이었다.

학생부 상업적 활용 제한은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조치로, 학생부를 영리 목적으로 취득하고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입시 정보 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공 진로·진학 상담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학생이 필요한 시기에 상담 기회를 얻을 수 있느냐다. 학생부를 직접 검토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수요가 몰리면 신청 단계부터 경쟁이 불가피하다. 실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상담 예약이 쉽지 않아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이른바 ‘예약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공공 상담이 민간 서비스의 빈자리를 메우려면 상담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학생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수험생들이 필요한 시기에 신뢰할 수 있는 진학 정보를 얻도록 보완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김수정 기자

고1 수학 평균점수 주요교과 중 ‘최하위’

내신 수학 성취도 3년 연속 최저
5등급제 체계에 원점수 관리 중요

고교 내신 평가 체계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 뒤 주요 교과의 평균점수와 상위 성취도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수학은 여전히 다른 과목보다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범위가 넓어진 새 체계에서도 수학의 상대적으로 낮은 성취도가 이어지면서, 과목별 원점수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수능에서도 수학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탐구가 문·이과 공통 응시로 바뀌는 만큼, 학교 내신과 수능을 함께 고려한 학습 전략이 필요해졌다.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토대로 전국 일반고 1679개교의 고1 1학기 성적을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수학 평균점수(평균)는 66.3점으로 주요 5개 교과 중 가장 낮았다. 국어는 71.3점, 사회는 71.2점, 과학은 68.9점, 영어는 67.2점이었다. 수학은 2024학년도에도 63.6점, 2025학년도에는 67.3점으로 최근 3년간 평균이 가장 낮은 과목이었다.

성취도 측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성취도 90% 이상인 A등급 비율은 수학이 2024학년도 17.6%, 2025학년도 21.5%, 2026학년도 20.2%로 3년 연속 주요 교과 중 최저였다.

지난해부터 고교 내신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됐다. 기존에는 상위 4%까지 1등급을 받았지만 새 체계에서는 상위 10%까지 1등급을 받는다. 5등급제 전환 이후 학교 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워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등급 구간이 넓어진 상황에서는 같은 등급을 받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원점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과목별 원점수와 성취 수준을 함께 관리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김수정 기자

교육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강화

학교급·학년별 교육모델 개발·지원

교육부가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틀을 마련하고 수업 자료 제공과 교원 연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3일 발표했다. 미디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학교급과 학년별 교육 모델을 개발해 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네 가지 영역으로 제시했다. ▲접근 및 활용 ▲이해 및 비판 ▲사회 참여 ▲민주적 소통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보면, 초등학생은 미디어를 ‘똑똑하게 이용하고’, 정보를 ‘따져 보며 이용하는’ 데 초점을 둔다. 중학생은 미디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한편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민주적 소통 영역에서는 초등학생에게 함께 생각을 나누고 결정하는 경험을, 중학생에게는 민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방향을 제시했다.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협력하는 ‘찾아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올해 360개 학교에서 내년 5000개 학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원 연수도 늘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는 올해 561명에서 내년 1000명으로 확대한다. /김수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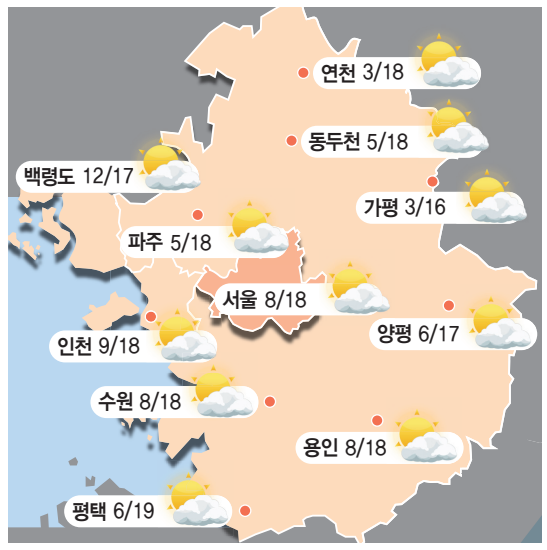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00 | 해짐 / 17:31

11월 4일 (水)
음력 : 9월 25일

수도권 날씨 8~18℃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美, 이란 케슘섬 공습…혁명수비대는 美 드론 격추 주장 /사진 뉴시스

▲“러 에너지 의존 대가 치렀다”…EU, 美 ‘러 가스 재공급’ 구상에 선 그어

▲美 중간선거 여론조사 민주당 우세…‘샤이 트럼프’·투표율 변수

▲美 중간선거 이후 재정 부담…2028년 대선 공약 재원 시험대

▲트럼프 두 아들이 간접 지분 보유한 텅스텐 개발사, 美 직상장 추진

▲‘주가 45% 급락’ 인텔, 파운드리 시험대…PC 침체·공급망 병목 겹쳐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27호 2026년 11월 4일 수요일



유통업계 AX 바람에 바뀌는 쇼핑공식 L1

보령 우주의학 인프라 준비 '착착' L2



"판 여는 언노우너, 길 다지는 노우너… 인재균형이 경쟁력"

속깊은 人터뷰

윤 상 윤 알렉스앤앨리스 대표



윤상윤 알렉스앤앨리스 대표가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년 베테랑 인사·조직 전략 전문가
인간의 본질서 새 프레임워크 제시

오류 줄여가는 '연역 추론'의 노우너
새 패턴 만드는 '귀납 추론' 언노우너

AI 시대, 새 질문 던지는 인재 필요해
탐색과 정교화 균형으로 조직 시너지
역할 맞춰 적재적소 배치할 때 성과

성향진단 솔루션으로 인재배치 도와
중·고교생 진로 컨설팅까지 확장계획

불확실성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데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다. '알려지지 않은 것'에 두려움보다 호기심을 느끼고,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사람들이다. 반면, '알려진 것'에 몰입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확실하고 검증된 데이터 안에서 안정감을 얻고 비로소 능력을 발휘한다.

조직 안에서 두 부류는 종종 부딪힌다. 후자는 전자에게 "일만 벌이고 수습을 못한다"고 투덜대고, 전자는 후자에게 "앞 뒤 꽉 막혀 답답하다" 불만을 표한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말한다. "왜 저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사람과 조직의 성장을 위한 솔루션 기업, 알렉스앤앨리스(Alex&Alice) 윤상윤 대표는 오랜 기간 이 갈등에 주목했다. 두 그룹의 차이를 연구하고 분석한 끝에 이들을 '언노운(Unknow)'과 '노운(Known)'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불확실하지만 기회가 클 수 있는 선택지'를 추구하는 '언노우너(Unknowner)'와 '확실하고 안정적인 선택지'를 찾는 '노우너(Knowner)'다. 이해할 수 없었던 서로를 정의하는 것 만으로, 오랜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신간 '언노우너스'를 통해 인사·조직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던진 윤상윤 대표를 만났다. 그는 "혁신은 언노우너가 가설을 세워 문을 열고, 노우너가 전제를 검증해 길을 다질 때 완성된다"며 "어떤 과제에 어떤 사람을 배치할 것인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때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강한 조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책을 쓰게 된 계기는.

"고민의 출발점은 결국 사람에 대한 '선택의 실패'였다. 진로와 커리어에 대해 잘못 판단해 맞지 않는 길에서 번아웃을 겪거나, 타인에 대한 선택을 잘못해 조직이 갈등을 겪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순간들이다. 실패의 원인은 결국 '사람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본래 기질을 억누른 채 남들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다 보니 나에 대한 선택도, 타인에 대한 선택도 실패하는 것이다. 사람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는 순간 올바른 선택이 시작된다. 선택의 실패를 줄이고,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해 최선의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돕고 싶었다."

- 언노우너와 노우너의 본질적 차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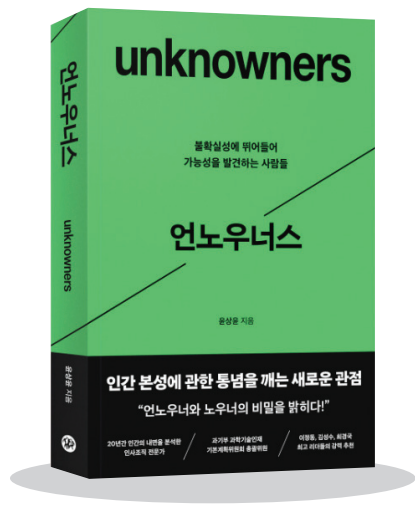
"본질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두려움'과 '욕망'의 불균형에서 시작된다. 본인이 가진 기질에 후천적 경험이 축적되면서 어떤 사람은 호기심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보다 탐색에 대한 욕망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 차이는 왜 만들어지는가에 집중하면서 노운 시스템과 언노운 시스템의 차이를 발견하게 됐다. 노우너는 이미 검증된 전제에서 출발해 오류를 줄이는 '연역적 추론'을 하는 반면, 언노우너는 파편화된 현상들을 관찰해 새로운 패턴과 가설을 세우는 '귀납적 추론'을 한다 점에서 차이가 난다."

윤상윤 대표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신세계그룹과 SPC그룹 등에서 인사 전략 담당자로 재직한 인사 조직 전문가다. 2022년 알렉스앤앨리스를 설립하고, 스타트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의 고유한 전략과 업태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20여년간 수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됐다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던 MBTI(4가지 축)나 Big 5(5가지 요인) 등 성격 요인만으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과와 행동 차이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윤 대표는 원인을 찾기 위해 2024년부터 카이스트(KAIST) 조직행동 연구팀과 함께 검증 연구를 진행했다.

- 이 프레임워크를 정립하게 된 계기는.

"경험과 성과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고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인사 진단을 해봐도 설명되지 않는 '숨겨진 축'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수많은 인재를 관찰하면서 깊은 의문이 생겼다. 이들을 관찰하다 보니 문득 사람들이 세상을 대할 때 '연역적으로 사고하는가, 귀납적으로 사고하는가'라는 생각의 방향성 차이가 떠올랐다."



- AI 시대에 언노우너가 주목 받는 이유.

"AI는 인간이 쌓아온 기존 데이터와 전제(Known)를 학습해 답을 내놓는 '최상급 노우너'다. 기존 전제 안에서 정답을 내는 영역은 AI가 인간을 완벽히 대체하게 된다. 반면 언노우너는 세상을 '점'으로 바라본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파편화된 점들을 연결해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모호함 속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사업적 기회를 창출하는 힘은 여전히 언노우너의 영역이다."

- AI 시대에 언노우너가 더 좋은 건가.

"그렇지 않다. 역할이 다를 뿐이다. AI가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자율적인 오작동(Agentic Misbehavior)'이나 오류를 관리하고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이기 때문이다. 확실한 도메인 지식을 가진 노우너들이 AI를 고도로 숙련되게 제어하는 '상위 관리자(Hyper Controller)'로서 핵심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언노우너가 유연하게 피보팅(Pivoting)하며 새로운 판을 열고, 숙련된 노우너가 AI를 활용해 이를 정교하게 시스템화하는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 한국의 조직 문화는 노우너의 비율이 높을 것 같다.

"100여개 문항으로 구성된 성향진단 솔루션 데이터나 연령대별 통계를 내보면, 우리 사회는 세대가 바뀌어도 노우너 60%, 언노우너 40%의 비율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질적 요소에 더해 한국 특유의 정답 중심 교육과 관료적 조직 문화 속에서 학습된 결과로 풀이된다. 수직적이고 획일화된 구조에서는 새로운 가설을 세우는 '언노우너'가 살아남기 어렵다."

- 언노우너를 키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조금씩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다. 거창한 것보다는 '작은 성공의 경험'을 단계적으로 쌓아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리더의 변화가 중요하다. 지금의 리더들은 지난 수십 년간 노운 시스템 속에서 상명하달과 정확한 집행으로 성공해 온 사람들이다. 그 성공 방식이 불확실성 시대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기존에 '오차 없이 완결했는가'를 중심으로 했던 평가를 '실패를 무릅쓰고 얼마나 유의미한 가설을 탐색하고 새로운 영역을 열었는가'를 중심으로 옮겨올 필요가 있다."

윤상윤 대표는 언노우너와 노우너의 균형이 최상의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영화 '아바타'를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예로 들었다. 아바타와 타이타닉 등 대작을 만든 카메론 감독은 미지를 향한 상상 속에 살던 전형적인 언노우너였다. 제작 일정과 제작비는 생각하지 않고 상상력만을 쫓던 카메론이 위대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건, 무모한 상상을 현실로 구현한 프로듀서 존 랜도 덕분이었다. 서로의 가치를 알아본 두 사람은 역사상 손꼽히는 초격차 시너지를 만들어 냈다.

- 조직 내에서 이들의 시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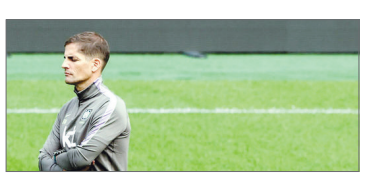
"오랜 시간 지켜본 결과, 언노운 시스템이 뒤흔든 조직은 체계를 세우지 못해 무너졌고, 노운 시스템이 효율만 추구한 조직은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 성장 동력을 잃었다. 언노우너는 정답이 없는 미지의 영역에서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돌파구를 만드는 '탐색'을, 노우너는 언노우너가 가져온 가설을 다듬어 안정적인 성과로 연결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지속과 정교화'를 담당한다. 리더의 핵심 역량은 이들의 다름을 이해하고, 어떤 과제에 어떤 사람을 배치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다. 이 배치가 적재적소에 이루어질 때 조직은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강한 조직이 될 수 있다."

-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나.

"현재 인사·조직 분야는 심리학이나 조직행동학 등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에 비해 현실적인 진단과 실행 솔루션 발전이 가장 더딘 분야 중 하나다. 개인적 미션이자 기업의 목표는 'Empowering People, Enabling Organization(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조직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올해 선보인 '스펙티브' 성향진단 솔루션을 시작으로, 기업의 적재적소 인재 배치를 돕고 있다. 앞으로 이 솔루션을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업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 컨설팅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아시안컵, 중동 불안에 1년 연기…모레노 감독 거취도 영향 /사진 뉴시스

▲이강인·김민재, 모레노 감독 앞에서 챔피언스리그 맞대결

▲태국축구협회, 박항서 감독에 "김치맨" 외친 관중 조사 착수

▲KT 이강철 vs 삼성 박진만…한국시리즈서 MVP 출신 감독 지략 대결

▲'이동욱호' 롯데, 일본서 수비 강화 캠프…선수단 50명 참가

▲'경질설' 맨유 캐릭 감독 "미친 사람 같지만…로마전 기대"